

## 1. NY 외곽, 비행장 격납고 / 밤

---

거대한 격납고로 카메라 서서히 다가가면 갑자기 어둠속에서 총 소리와 함께 화염이 번쩍인다.

### <격납고 안>

피가 흥건한 바닥에 대 여섯 명의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의 시체가 쓰러져 있다.

피 흘리며 바닥을 기어가는 카르텔의 두목.

귀 밑에 도마뱀 문신을 한 장명준이 총을 들고 두목을 내려다 보고 있다.

**장명준**                    **다 가질려다 전부 잃는 기야!**

**카르텔두목** *No me mates!!! (살려주세요!!!)*

장명준이 달려가 가득한 돈 가방에서 100달러 다발 두 덩어리를 꺼낸다.

**장명준**                    **돈이 그리 좋니? 그러면 이 돈이 널 살릴 수 있가서?**

장명준이 돈다발 두덩어리를 카르텔두목의 이마에 대고 그 위에 총구를 겨눈다.

벌벌 떠는 카르텔 두목, 장명준이 가차 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돈다발을 뚫고 카르텔 두목의 머리를 관통하는 총알

**장명준**                    **돈으로도 안 되는게 있구만 거래!**

장명준의 부하들이 돈과 마약 가방을 챙긴다.

그때 부하의 가슴에 붉은색 레이저 점이 생긴다. 저격수의 조준이다.

부하가 총을 드는 순간, SWAT의 총에 맞아 픽 쓰러진다.

교전이 시작되고 장명준이 마약과 돈 가방을 챙겨 차에 올라타 도망친다.

장명준의 차가 격납고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FBI 차량이 진로를 막고 장명준은 급제동한다.

순식간에 포위되는 장명준, 수십 개의 붉은색 레이저가 장명준을 겨냥한다.

선두에 서 있던 잭(30대, 남)이 장명준에게 다가온다.

장명준이 조수석에 있는 권총을 집어 들려는 순간 잭이 관자놀이에 총을 겨눈다.

**잭**                            ***Don't even think about it (꿈도 꾸지마!)***

두 손을 드는 장명준, 잭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다.

## 2. FBI NY 지부, 사무실 / 아침

---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스타벅스 커피를 든 잭이 걸어 나온다.

### 3. FBI NY 지부, 지부장실 / 낮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NY 지부장(50대, 남, 백인)

지부장 (영) 잭! 제정신이야? 보고도 없이 SWAT를 동원해?  
 잭 (영) 제보를 받았는데 워낙 긴급상황이라!  
 지부장 (영) 제보? 누가?  
 잭 (영) 아직 모릅니다. 이메일로...  
 지부장 (영) (한숨) 아무튼 1년이나 쫓던 놈인데 축하해! 그 동안 미웠던 휴가라도 가게!  
 잭 (영) 자금흐름에 유통망까지 파야죠! 종신행을 먹일겁니다.  
 지부장 (영) 종신행이 아니라 총살당할 거야!  
 잭 (영) (피식) 농담도 참! 여기가 북한두 아니고 무슨 총살...

### 4. FBI NY 지부, 복도 / 낮

흥분한 얼굴로 미친 듯이 복도를 달려가는 잭

### 5. FBI NY 지부, 취조실 / 낮

정장 차림의 한광성(20대후, 남)이 취조실 문 앞을 지키고 있다. 가슴엔 인공기 뱃지가 보인다.  
 취조실 안에는 장명준과 마주한 철령의 모습이 보인다.

장명준 림철령이... 어찌 여기서 만나니! 양골라 파병 때가 마지막이니 10년쯤 됐나? (빈정거림) 아! 격술 겨루기 대회 결승전서 나한테 쳐 맞은 건 좀 괜찮아졌니?

킥킥대는 장명준. 철령이 고개를 들면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난다.

철령 내가 준결승에서 당한 부상 탓에 기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명준 목사발 뭉까봐 꿈무늬 뺐거이 아니고?  
 철령 (미소) 명예를 먹고 사는 군인이 마약상이 돼? 부하들 보기 부끄럽디 않소?  
 장명준 (피식) 마누라가 눈앞에서 죽었다면서? 넌 뭐했니? 고거이 부끄러운 기지... 내가 너라든 지옥까지 쫓아가 원수를 찢어 죽이구 말기야

철령 이를 악물며 장명준의 도발을 참는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잭이 나타난다.

잭 (영) 어떤 새끼가 내 밥그릇에 손을 대?

한광성 죄송 함미다 이자가 막 밀구 들어오는데...

철령이 잭에게 외교문서를 꺼내 보인다. 옆에 있는 한광성이 통역한다.

철령 조미간 합의에 따라 범인을 본국으로 송환 한다. 공화국은 귀관의 협조에 감사한다.

잭 (영) (어이없음) 감사를 이딴 식으로 해? 어디 종이꼬가리로...

철령 멈추라! 동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사절의 특권을 침해하고 있어!

철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잭이 무례하게 문서를 빼앗으려 다가온다.

철령이 전광석화처럼 잭의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는다.

잭이 아프다고 “아!!! 아!!!” 비명을 지르고 동료들 앞에서 모냥 빠진 꼴이 된다.

철령이 잭의 손목을 놔준다. 체면을 구긴 잭이 복싱 자세를 취하며 허세를 떨다.

잭 (영) 야! 911에 전화해! 넌 오늘부터 월체어 신세야!

철령과 잭이 팽팽하게 서로를 노려본다. 그때 지부장이 들어와 잭에게 호통을 친다.

지부장 (영) 국무성 명령이라고 했잖아! 지금 북한과 수교 협상 중인 거 몰라?

잭 (영) 너 운 좋은 줄 알아! 3차 대전 터질까봐 내가 참는다!

지부장 (영) 비행기 탈 때까지 우리 관할이니까 공항까지 호송해!

잭이 투덜대며 나가고, 한광성이 철령을 향해 엄지척한다.

## 6. FBI NY 지부, 지하주차장 / 낮

삼엄한 감시 하에 호송이 시작된다. 수갑과 족쇄를 찬 장명준이 호송트럭에 오른다.

장명준이 철령을 비웃는다. 명준의 여유로운 모습에 불길함을 느끼는 철령.

## 7. NY 시내, 도로 / 낮

엄중한 경계 속에 이동 중인 호송행렬, 잭과 철령이 탄 SUV가 호송행렬 선두에 선다.

### <철령이 탄 SUV 안>

SUV를 운전 중인 잭, 뒷자리 앉은 철령과 한광성. 한광성이 작은 모형 비행기를 꺼내 만지작거리다.

한광성 고맙습니다. 어제주신 100달러루다 딸이랑 아이엄마 선물 샀습니다.

철령 (당혹스런 표정) 배... 백달라? 내가? 십달러짜리 아니었소? 기거 바뀐거요 바꾸기요

한광성                   에 ???..이거 어깝미까? 다 썼는데!!...

당황해하던 한광성이 철령을 보면 장난스럽게 웃음을 참고 있다.

한광성                   또...또! 장난입네까? 조장 동지도 참...

한광성이 가족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6살 정도의 아이와 아내가 보인다.

한광성                   굽디요? 저만 보문 경례를 하는거이 신통함미다 내 심장을 쪼굴었다 뺏다 해대는 보물임다.

사진을 쓸쓸히 바라보는 철령. 광성이 철령의 마음을 눈치 채고 립스틱을 꺼낸다.

한광성                   이거 아이엄마 줄라구 몇 개 산건데 조장동지 한 개 가지시랴요

철령                   일없소. 내래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끼니...

한광성                   눈치는 밥 말아 먹었음까? 조장동지를 호랭이눈깔루다 노리는 애미나들이 한둘이 아닌데...

                          내래 이 얼굴로 태어났으면 이카구 안 산다...

한광성이 역지로 립스틱을 철령의 주머니에 쑤셔 넣자 마지못해 받으며 피식 웃는 철령.

그때 반대편 차선으로 픽업트럭이 크게 경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간다.

#### <호송 트럭 안>

경적소리를 들은 장명준이 씨익 웃으며 좌석의 손잡이를 꼭 잡는다.

#### <철령이 탄 SUV 안>

철령이 매의 눈으로 픽업트럭에 탄 박상위(30대, 남) 귀밑의 도마뱀 문신을 포착한다.

철령                   (동공이 커지며) !!!!

철령이 잭에게 경고를 하려는 순간 폭발물이 터지며 철령이 탄 SUV가 공중에 뜨며 전복된다.

강한 충격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철령

#### <도로>

철령의 SUV를 뒤따르던 호송차가 급정거 하고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사주경계를 한다.

순간 저격수의 총격이 시작되며 요원들이 픽픽 쓰러진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철령과 잭이 차에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 <도로, 호송트럭 위치>

호송트럭의 운전석을 향해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온다.  
 방탄유리 덕분에 뚫리지는 않지만 운전요원이 총격을 피해 황급히 후진을 한다.  
 그러나 박상위가 탄 픽업트럭과 한 무리의 차들이 호송트럭 진로를 차단한다.

#### <호송 트럭 안>

호송트럭이 급정거를 하자 장명준을 감시하던 호송요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장명준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리로 호송요원의 목을 감아 꺾는다. 절명하는 요원.  
 요원의 총을 뽑아 앞좌석의 요원을 죽이는 장명준, 열쇠를 꺼내 수갑을 푼다.

#### <도로, 호송트럭 위치>

차에서 내린 장명준 일당이 호송요원들과 교전을 벌인다.

#### <호송트럭 위치>

호송트럭에 다가온 박상위와 김상사(30대중, 남)가 잠금장치를 폭탄으로 터뜨려 뒷문을 연다.  
 화약연기를 헤치며 유유히 걸어나오는 장명준

박상위  
 장명준

(경례하며) 조금 늦었습니다!

(피식) 많이 늦었다!

장명준이 부하로부터 기관총을 받아 들고 호송요원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 <철령이 탄 SUV 안>

철령과 잭 광성이 차에서 빠져나온다. 저격을 피해 몸을 숨기는 세 사람.  
 철령이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총알이 날아와 사방으로 파편이 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잭이 차에서 기관총을 꺼낸다.

#### <도로, 호송트럭 위치>

장명준이 호송요원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한다. 광기에 사로잡힌 장명준의 표정

#### <철령이 탄 SUV 위치>

장명준을 목격한 철령이 결단을 내린다.

철령  
 잭

(영) 총을 줘!

(영) 난 널 믿지 않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요원의 총이 철령의 시야에 들어온다.

철령

(영) (답답) 내가 유인할테니 저격수를 맡아라!

철령이 맨몸으로 달려나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든다.  
 저격수가 철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간다.  
 버려진 차에 올라탄 철령이 전속력으로 후진한다. 저격수가 철령을 겨냥해 사격을 가하지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빗나간다.  
 그 틈에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한 잭이 저격수를 겨냥한다. 심호흡을 하는 잭.  
 저격수가 철령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잭이 저격수를 명중시킨다.

### <도로, 호송트럭 위치>

후진해 달려오는 철령의 차를 발견한 장명준이 철령에게 기관총을 난사한다.  
 철령이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면 후진하던 차가 회전하며 철령과 장명준이 서로 마주보게 된다.  
 서로를 향해 사격을 가하는 두 사람. 장명준 옆의 부하가 철령의 사격에 쓰러지고 장명준은 차 뒤로 숨는다. 회전하며 멈춘 차에서 튀어나온 철령도 엄폐물 뒤에 숨는다.  
 잭과 광성이 철령에게 달려와 합류한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초조해진 박상위가 장명준을 재촉한다.

박상위

가야합네다.

장명준 어쩔 수 없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철령이 앞장서 그 뒤를 쫓는다.  
 철령이 장명준을 겨냥해 총을 쏘려는 순간. 도망치는 장명준이 기폭장치를 누르는 걸 발견한다.  
 철령의 뒤에서 들리는 “삐삐삐” 소리. 철령 돌아보면 장명준 일당이 타고 왔던 차에 실려 있는 인화 물질이 든 드럼통에 설치된 폭탄이 보인다.  
 폭탄을 향해 달려오는 한광성을 발견한 철령이 한광성을 구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폭탄이 터지며 한광성은 화염속으로 사라지고 철령은 후폭풍에 날아간다.  
 청력이 마비된 철령의 흐릿한 시야로 장명준이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부상을 입은 철령이 겨우 몸을 추스려 일어나고 잭도 절룩거리며 철령에게 다가온다.  
 멀어지는 장명준을 허탈하게 바라보는 철령의 모습 옆으로

*Title 떠오른다. 공조2 : 인터내셔널*

## 8. 보이스피싱 사무실 / 밤

검은 화면 속에서 전화신호가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F.I 담배 연기가 자욱한 어둡침침한 공간이 보인다.

건달

서울중앙지검 김희덕 수사관인데요. 김미영씨 본인 맞으십니까?

PC방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책상에 건장한 체구의 젊은 남자들이 런닝셔츠 바람으로 전화기를 붙

잡고 통화중이다.

- 건달1            본인통장이 불법거래에 이용된 사실 압니까? 당황하지 마시구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신 것 같은데 현재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빨리 인출하신 후에.
- 건달2            네 어머니 저 민우 친구 상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민우가 지금 술먹고 사람을 패서 지금 경찰서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구요... 빨리 합의를 못보면 회사로 연락가서 찢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빨리... 네? 그런 자식 필요 없대구요? 어..어머니?
- 건달3            내 말 똑디 들라! 당신 딸을 납치했거든? 몸 값 3천만원을... 예? 딸이 방금 집에 들어왔다구...요? 참 다행이네요! 애가 착하네...(다시) 내가 지금 당신 마누라를 납치... 뭐? 모텔솔로라고? (한숨) 등신새끼야!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말고 나가서 여자도 좀 만나고!!!

전화기를 부셔버리는 건달. 책상서류를 열면 새전화기가 여러 대 보인다. 다시 설치하는 건달3

- 건달3            아 대본 좇잖네!! 좀 바꿔줘요! 자꾸 재방송 하니까 사람들 다 눈치 까는구만...
- 팀장            (뒤통수 때리며) 새끼야! 네 발연기 때문이지 왜 대본 탓이야! 진심을 담아서 해봐! 제대로 감정잡고 메소드루다가 몰입을 해서... 실적도 제일루 안 좋은게...

한쪽 구석 응접실에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진태가 보인다. 진태는 가슴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로 증거영상을 촬영중이다. 진태에게 다가오는 팀장.

- 팀장            보시다시피 평범한 텔레마케팅회사예요! 어느 짝이 적성에 맞으실랑가 모르겠네... 전화상담은 감정노동이라 피곤해요... 대신 수금은 돈만 받아오면 되는 일입니다. 수금액의 1%가 수당으로 나가구요.
- 진태            크크 텔레마케팅? 에이 딱 봐도 보이시퍼싱이구만... 그리고 1%는 아니지!! 수금액 하다 경찰한테 잡히면 나만 좇되는건데...
- 팀장            하~ 이 바닥 짬이 좀 되시나 보네
- 진태            필리핀서 레지던트 1년 하다가 연변에서 전문의로 한 2년...
- 팀장            에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럼 대본도 좀 쓰시나?
- 진태            별명이 강작가야! 권당 오백이면 시청률 잘 나오게 써드릴 수 있지!
- 팀장            (진태의 몰카를 발견한다.) 근데... 그거 뭐야? 카메라?
- 진태            (당황) 내...내가 유튜브를 해! 유튜브!
- 팀장            (도망치며) 이런 개 같은!!!

팀장이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순간 팡 열리는 문짝에 맞아 자빠지는 팀장  
표반장과 형사들이 들이닥친다. 진태가 형사 신분증을 꺼내 큰 소리로 외친다.

- 진태            형이 광수대 강진태야! 대포통장, 대포폰, 위조여권 어디서 났어? 공급책 빨리 불러!

## 9. 한강 공원, 반포 지구 주차장 / 밤

강물 위로 화려한 불빛의 유람선이 지나가고 산책로에는 저녁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보인다.  
진태(40대초, 남)가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다.  
100미터 거리 봉고차에는 수갑을 찬 보이스피싱 팀장이 뒷자리에 묶여 있고 앞자리에는 표반장과 이형사가 컵라면 뚜껑을 열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려는 순간, 진태가 무전을 때린다.

진태                    왜 이르게 안 와! 춥고 배고파~ 근데 니들...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지?

### <잠복차량>

표반장과 이형사 컵라면을 한 젓가락 먹으려다가 멈칫하며

표반장                (당황) 야 우리가 양아치도 아니고 아무렴...

이형사                (시침뚝) 선배님 섭섭합니다.

팀장                    개코네 개코 누가 형사 아니랄읍읍...

팀장의 입을 틀어막는 이형사. 그때 요란하게 튜닝된 스포츠카가 진태 앞에 멈춘다.  
헤드라이트를 깜박이며 진태에게 신호를 보내는 스포츠카.

열리는 자동차 트렁크, 세르게이가 박스를 열면 수북한 위조여권과 대포폰이 보인다.  
세르게이가 진태에게 대포통장을 건넨다.

세르게이            하나에 백만원 몇 개 필요해?

### <잠복차량>

표반장이 망원렌즈로 세르게이를 촬영하며 보이스피싱 팀장에게 보여준다.

표반장                강형사! 얼굴 확인 좀 해야 하니까 시간 좀 끌어!

팀장                    포커스 좀 잘 맞춰 봐요!

시간을 끌려는 진태의 아무말 대잔치

진태                    여권도 하나 줘봐, 같이 사든 할인 되지?

세르게이가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며 자랑을 한다.



세르게이           KGB 친구가 만든 거야. 홀로그램까지 완벽한 거 보이지? 이런 건 나밖에 못해!  
진태                어디서 오셨나? 러시아? 고려인?  
세르게이           (피식) 카레이스키 티나? 할아버지 고향에 돈 벌러 왔지!

그때 지나가던 순찰차가 세르게이 차 옆에서 멈추고 순경들이 내린다. 긴장하는 세르게이와 진태.  
표반장과 이형사도 당황한다.

순경1               차주 되십니까? 차적 조회 하니까 대포차라고 나오네요!

진태가 너스레를 떨며 순경들에게 다가간다.

진태               아이고 고생들 많으시네...

#### <잠복차량>

그 순간, 카메라에 찍힌 세르게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다.  
고개를 끄덕이는 팀장, 표반장과 이형사가 출동한다.

진태가 경찰에게 윙크를 하며 입모양으로 “나도 경찰, 경찰!! 그냥 가”라고 싸인을 준다.  
그러나 경찰들은 오히려 진태를 수상히 여긴다. 진태를 보던 순경1이 갑자기 무릎을 탁친다.

순경1               봉천동 부녀자 연쇄 납치사건 몽타쥬랑 빼박인데?  
순경2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진태               (피식) 내... 내가? 어딜 봐서...

순경1이 진태의 몸을 수색하자 뒷주머니에서 수갑이 나온다.

순경1               여자한테 수갑을 채워서 납치?  
세르게이           변태새끼!!! 그래서 외국으로 툴려구 위조여권을?  
순경1               (당황) 위조여권?  
순경2               (총 뽑으며) 소... 손들어!  
진태               (신분증을 꺼내며) 아이씨!!! 나두 경찰이야 경찰!!!  
세르게이           (권총을 꺼내며) 뭐! 째새!!! 이런!!!

놀란 순경들과 진태가 순찰차 뒤로 숨고 그 틈에 세르게이가 차에 타 도망친다.  
진태가 쫓아가 세르게이의 차 지붕 위에 매달린다.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자동차.  
세르게이가 진태를 떨어뜨리려고 핸들을 좌우로 틀지만 진태는 악착같이 버틴다.  
세르게이가 차 지붕으로 총을 쏜다. 진태 양옆으로 구멍이 뽕뽕 뚫린다. 식겁하는 진태.  
그때 경찰차가 세르게이의 차를 막는다. 브레이크를 밟자 지붕의 진태가 본네트로 굴러떨어진다.

세르게이의 차가 전속력 후진하고 표반장과 이형사가 탄 차가 세르게이의 차에 따라 붙는다.  
 후진하던 세르게이의 차가 공원지구를 빠져나와 잠수교에 올라탄다.  
 후진을 하며 역주행하는 세르게이의 차가 잠수교 복단에 다다를 때쯤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를 진태가 발견한다. 이대로 가면 아이는 죽는다.  
 진태가 운전석 안으로 손을 뻗어 운전대를 반대쪽으로 틀어버린다.  
 차가 드리프트하며 회전하고 매달려 있던 진태는 차에서 굴러 떨어진다.  
 세르게이의 차 쏜살같이 사라지고 쓰러진 진태 앞에 표반장이 탄 차가 가까스로 멈춘다.  
 진태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멀어지는 세르게이의 차를 허망하게 바라본다.  
 차에서 내린 표반장과 이형사가 진태를 보더니 깜짝 놀란다.

이형사            선배님!!!  
 진태            왜?  
 표반장           피!!!

진태의 옆구리를 보면 붉은 피가 흘러나온다. 진태, 갑자기 비틀거리며 픽 쓰러진다.

## 10. 평양, 애국열사릉 / 낮

### 자막 “평양- 애국열사릉”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광성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하늘을 향해 예포를 쏘는 요원들.  
 왼팔에 깃스를 한 정복차림의 철령이 멀리서 미망인과 어린 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흩어지자 철령이 유가족에게 다가간다.  
 철령이 한광성의 유품인 모형 비행기를 어린 딸에게 건넨다.  
 어린 딸은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지 선물을 받고 활짝 웃는다.  
 어린 딸이 철령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다. 만감이 교차하는 철령이 애써 웃으며 경례를 받아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물줄기가 철령의 볼을 흐른다..

자막 - 2개월 후

## 11. 껌데기 집 / 밤

표반장, 이형사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앞에는 진태의 빈자리가 보인다.

표반장            우리 둘만 있으니 강진태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는 구나...  
 이형사            그르게요... 강형사님 그곳에선 잘 지내고 있겠쥬?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태, 건강한 모습이다.

진태                    벌써 시작했어? 금방 온다니까...

<잠시후>

수북히 쌓인 술잔. 거나하게 취한 세 명의 형사.

이형사                형님, 사이버수사대는 할 만 합니까?  
진태                    일주일씩 뻘쓰 못 갈아 입고 잠복근무 할 일은 없으니까... 식구들도 좋아하고  
표반장                그래, 이제 거기서 뻘을 물어! 좋잖냐 저녁이 있는 삶  
진태                    (씹쓸한 표정) 근데... 수갑 채울 때 그 짜릿한 손맛이 그리워... 참돔 정도는 돼야 그런 손맛일  
                              거야 그지?  
표반장                칠칠치 못하게 총이나 맞구 땡기니까 그쪽에 유배된 거 아니냐?  
진태                    니들이 똑바로 했으면 내가 총에 맞았겠냐?  
이형사                그냥 살짝 스친 거 가지고 생색은...  
진태                    스쳐? 3센치만 빗나갔으면 골로 갈 뻘 했다고!! 의사 얘기 못들었어?  
표반장                꼬맨 것도 수술이냐?  
진태                    (버럭) 포경수술은 수술 아냐?

그 순간 표반장의 전화벨이 울린다.

표반장                뭐? 발바리가 떴어? 괜히 나서지말고 기다려! 이형사 가져!!  
진태                    가긴 어딜가! 2차 가야지!  
이형사                한 달간 쫓은 놈이예요! 요즘 아리랑치기 많다니까 조심히 들어가시고!

달려나가는 표반장과 이형사

진태                    (혼잣말) 조심은!!! 나 강진태야! 강진태! (씹쓸) 돈이나 내고 가든가...

인서트 - 강북경찰서 모습

## 12. 강북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 낮

<사이버수사대, 사건1>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이 보인다. 늘 캐주얼 복장이던 진태가 경찰제복을 입고 있다. 왠지 어색한 모습. 피해자 앞에서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진태.

진태                    중고나라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택배상자를 열어보니 치킨상자에 닭뼈다귀만 들었다?  
 피해자                비닐봉지도 하나 있길래 열어봤더니 글썽... 또...똥이  
 진태                    똥? 와! 그 미친놈이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며 방송이 나온다.

“관내 인질극 발생, 강력반 출동 바람 위치는...”

강력반들이 출동하는 모습이 보이자 진태도 본능적으로 달려 나가려다 멈춘다.

피해자가 진태를 뭐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진태 머리를 긁적이며 제자리에 앉는다.

진태                    죄송합니다. 버릇이 되서... 그럼 저희가 일단 똥에서 DNA를 채취하고...

#### <사이버수사대, 사건2>

여전히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진태.

진태                    4월 16일 방학동 소재 PC방에서 시비 끝에 쌍방폭행...

진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앞을 보면 고삐리 두 명이 보인다.

진태                    (짜증) 이거 누가 접수했냐? 단순 폭행을 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타쿠처럼 생긴 형사 오덕(20대후, 남)이 일어나며 대답한다.

오덕                    제가...

진태                    야! PC방에서 사람패든 사이버범죄야?

오덕                    그게 아니라 키보드로 패가지구...

진태                    (짜증) 키보드로 사람 팬게 사이버 범죄든 돈으로 사람 패든 금융범죄야?

괜한 짜증을 내는 진태

### 13. 철령의 몽타쥬 / 낮

#### <의무실>

철령이 소형 전기톱으로 왼팔 깁스를 자른다. 아직 덜 잘린 깁스를 힘으로 뜯어내는 철령

철령이 거울을 보며 잘 움직이지 않는 왼손 주먹을 불끈 쥔다. 고통에 일그러지는 철령의 얼굴

#### <사회안전성 사격장>

사격대에 서 있는 철령. 명준의 사진이 붙어있는 표적지를 향해

순식간에 권총을 뽑아 속사사격을 한다. 탕!탕!탕! 결연한 철령의 표정으로

#### <원형술 사무실>

프로젝터를 통해 장명준의 사진과 각종 정보들이 스크린에 펼쳐진다.

사회 안전성 제1부장 원형술(60대, 남) 앞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철령. 아직 깃스를 하고 있다.

원형술           정찰총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장명준이의 흔적을 찾아냈다.  
철령           (놀라며)...  
원형술           근데... 골치 아프게 됐다! 놈들이 위조여권으로 남조선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철령           (놀람) 예?

####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입국심사대 앞에 장명준이 서 있다. 여권을 살펴보는 심사관. 홀로그램까지 완벽하다.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장명준과 김철수, 박상위, 김상사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진다.

#### <원형술 사무실>

원형술           과거 고난의 행군 때 외화벌이 사업으로 군의 915 연구소가 빙두를 생산했었다. 그게 내외로  
                    문제가 되어 당이 금지하디 않았잖아. 근데 달러 맛을 본 장명준이가 명령을 어기고 10억불  
                    스위스 계좌를 들고 사라졌었다. 그 돈이든 공화국 전체를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았어?  
철령           왜 남조선으로?  
원형술           왜갔니? 10억불을 관리하는 자금책이 남쪽에 있다는 거 아니가서?

화면으로 보이는 김철수의 사진.

원형술           알디? 전 리승기 연구소 연구실장, 915연구소 빙두 개발 총책 김철수. 생각해보라 미국과 평  
                    화협정 체결이 공화국 최고의 외교과제인 시점에 장명준과 김철수가 미국에 잡히게 되든 공화  
                    국이 나서서 빙두사업을 한거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카서? 그케되든 평화협정이고 뭐고 고난  
                    의 행군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회담 장소를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변경했다. 남측과는 협의가 끝  
                    났으니 당장 내려가라! 일주일 후 우리 측 대표를 모시고 내가 서울로 가갔어! 그때까지 자금  
                    책을 찾아내서 장명준이와 10억불 모두 가져오라!

결의에 찬 철령이 원형술에게 절도있게 경례를 한다.

#### <사회안전성 사격장>

탕탕!!! 철령이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탄창이 빌 때까지 사격을 가한다.

표적지에 붙은 장명준의 사진이 너덜너덜하다.

#### 14. 거대 물류 창고 / 밤

다양한 물건들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물류창고, 후레쉬를 든 경비원이 순찰중이다.  
바스락 소리에 경비원이 돌아보면 갑자기 나타난 박상위가 경비원의 목을 꺾어 버린다.  
셔터문이 열리며 장명준 일당이 들어온다.  
화학물질이 든 드럼통들 사이에서 제조책 김철수가 뭔가를 찾아낸다.

김철수                      이겁니다. 벤질시아나이드

장명준 부하들이 지게차를 이용해 드럼통을 트럭에 싣는다.

#### 15. 장명준 은신처, 몽타쥬 / 밤

드럼통을 싣은 트럭이 은신처로 들어온다. 마약 제조를 위한 실험실이 준비돼있다.

##### <실험실>

방독면을 쓴 김철수가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투명한 결정을 만든다.  
투명한 결정을 가공하여 최종 생산물인 빨간 알약을 만들어 내는 김철수.  
빨간 알약을 핀셋으로 잡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명준. 빨간약이 가득 찬 봉지가 쌓여간다.

장명준                      떡밥 좀 뿌리라 고기들 모이게...

노트북 화면에 흘러나오는 뉴스, 북미회담 장소가 서울로 변경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장명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 16. 진태의 아파트, 단지 재활용 분리수거장 / 낮

진태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예리한 눈으로 다른 주민들을 스캔하는 진태.  
그때 한 아줌마가 라면국물이 묻은 컵라면 용기를 재활용 칸에 버리는 걸 매의 눈으로 포착한다.

진태                      어이 아줌마! 이...이걸 재활용에 버리든 어떡해요?

아줌마                      죄...죄송합니다.

진태                      저번에도 그러더라 상습범이네! 똑바로 합시다. 네?

이번엔 “기타, 플라스틱류”라고 표시된 분리수거함에 기타(악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는 진태

진태                      아냐! 어떤 들 떨어진 자식이...

근처에 있던 경비원에게 달려가는 진태

진태                    아저씨 여기 CCTV 좀 돌려봅시다. 어서!!!  
경비원                근데 누구?  
진태                    내가 누구냐면!!!

## 17. 진태의 집 / 낮

소연이 바느질로 테디베어 인형을 만들고 있다. 마침내 완성된 인형을 진열대에 올려놓는다.

소연                    (뿌듯한) 아이구 이쁜 내 새끼들!!!

크고 작은 테디베어 인형 수십 개가 웅기종기 모인 진열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소연.

진태                    (투덜대며 들어온다.) CCTV를 왜 안 보여줘! 이거 확! 수색영장 받아와?

소연이 진태에게 테디베어 인형을 자랑한다.

소연                    집 넓혀서 이사하니까 너무 좋다.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당신도 좋지?  
진태                    그럼 그럼...  
소연                    근데 당신 혹시 이상한 아저씨 못 봤어?  
진태                    아니 못 봤는데?  
소연                    어떤 진상이 분리수거장에서 오만 참견에 오지랖을 부린데, 자가 뭐데? 보나마나 회사 짤리고  
할 일 없는 쫄대겠지, 같이 사는 마누라는 무슨 죄야!!!

진태, 들어보니 딱 자기 얘기다. 씁쓸한 표정

소연                    표정이 왜 그래?  
진태                    (한숨) 아녀아녀 밥이나 먹자구!

### <민영의 방>

민영이 상의는 멋진 블라우스에 바지는 다 헤진 낡은 츄리닝 차림으로, 얼굴은 짙은 스모키 화장을 하며 유튜브 방송을 녹화하고 있다.

민영                    (마스카라 하며) 베를린 클럽에서 아주 힙한 오리엔탈 스모키 스타일을 살피봤어요~ 따라하면  
인싸되는 민영이의 메이크오버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는 사랑...

귀여운 척 손을 흔드는 민영, 그때, ‘뻑!’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민영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민영이 도끼눈을 하고 뒤돌아보면... 소연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서있다.

민영                    아, 왜 그러는데!!!!  
소연                    밥 처먹으라고 뱃변을 불렀냐?

### <부엌 - 식탁>

진태와 연아 소연이 앉아서 식사 중이다. 투덜대며 민영이 나온다.

민영                    (어이없다) 지금 일하는 거 안보여?  
소연                    얼굴에 딱칠하는 게 일이나? 분장학원 다닌대서 보내줬더니 취직은 안하고 한다는 짓이  
민영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유투버란게 잘만 하면 한 달에 일억도 넘게 벌 수 있다고!  
연아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민영                    ...3만 6천원...  
진태                    오? 하루에?  
민영                    수익이 난지 얼마 안 돼서... 1년에...  
소연                    예라 이~  
진태                    365일에 3만6천원이든... 일당 백원! 연아야! 이제부터 이모 별명은 일당백이다 일당백!

킁킁대는 진태와 연아. 벌떡 일어나는 민영.

민영                    형부까지 진짜! 왜 이래? 나도 소시적엔 잘 나갔어  
소연                    이 년아! 차라리 형부처럼 경찰공무원 시험이나 보던가!  
진태                    경찰은 뭐 아무나 혀?

## 18. 강북경찰서, 옥상 / 낮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진태. 하늘엔 드론 한대가 주변을 빙빙 돌고 있다.  
오덕이 진태 옆에서 드론을 조종중이다. 그 옆엔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종구(20대중, 남)  
진태가 두 사람을 한심스럽게 쳐다본다.

진태                    (짜증) 암마 업무시간에 장난감 갖고 뭐 하는 거야!  
오덕                    장난감이라뇨! 이제 세상이 달려졌어요! 이걸로 실종자 수색하고 교통위반 단속하고..  
진태                    암만 세상이 바뀌어도 수사는 발로 하는 거야! 수갑은 형사가 채우는 거구!  
종구                    이참에 자격증 하나 따시죠! 성매매며 마약이며 전부 요 핸드폰 하나로 되는 세상인데  
진태                    내가 여기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냐! 어뜨케든 광수대로 복귀할거니까! 두고 봐라!  
오덕                    근데 소문이 사실이에요? 북한형사랑 큰 사건 하셨다던데...



진태 (좋아서 피식) 들었어? 내가 말 안 할려고 했는데... 세계경제를 파탄낼 수도 있는 슈퍼노트 동판을!!! (뜸들이며) 하~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종구 우리도 그런 큰 사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진태, 표반장과 이형사가 경찰서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재들이 왜?”

### <옥상>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

진태 뭐? 철렁이가?

표반장 다음 주에 있을 복미회담 준비팀 자격으로 내려오지만 내막은 지난번이랑 비슷한 거지! 약쟁이 하나 잡으러 온다는데 국정원이 그 말을 믿겠냐?

진태 근데?

표반장 임철령이랑 파트너가 될 형사를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려고 했는데

진태 응!

표반장 읊어! 아무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지

이형사 저번에 형님이랑 식구들 짝 다 죽을 뻔한 게 소문이 나서 전부 몸사리는 거죠!

진태 그니까 지금 서울대 법학과가 정원 미달 사태다 이거네...

표반장 그래! 지원만 하면 기냥 합격!!!

진태 근데 니들이 하지 왜 날 찾아왔어?

이형사 저...저는 결혼 날짜도 잡았고...

표반장 나는 우리 애가 고3이잖냐! (눈치보다) 광수대 복귀하고 싶다매? 손맛이 그립다매?

진태 (고민) 마누라가 알른 날 죽일려구 할텐데...

## 19. 옥외 주차장, 꼭대기 층 / 낮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옥외 주차장

1편에 등장했던 국정원요원(이하 양복쟁이)이 팔짱을 낀 채 진태와 표반장을 차갑게 노려본다.

국정원 신참요원(이하 선호)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두 손으로 양복쟁이에게 건넨다.

표반장 지난번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진태 제가 아니면 임철령을 누가 콘트를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또 이 형 말이라든 깜빡!

아이스커피를 알뜰게 쪽쪽 빨아 먹던 양복쟁이가 말을 끊는다.

양복쟁이 또 뒤통수 칠려구요? 알량한 의리 때문에 슈퍼노트 포기한 거 모를 줄 알아요?

진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절박) 이번엔 작전이 뭡니까? 도청

장치? 해킹? 아니든 수사하는 척하면서 뽕뽕이를 돌릴까요? 말만 하시든...

양복쟁이      수사 하세요 FM대로

진태      네?

양복쟁이      공조수사 제대로 하시라고요!

당황스런 진태 고개를 가웃하는 얼굴 위로

민영(V.O)      뭐? 철령씨가!!!!!!

## 20. 진태의 집 / 아침

민영이 밥을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난다. 진태 가족의 아침 식사 모습이 펼쳐진다.

소연      (밥숟가락 놓으며) 그 인간이 또? 왜?

진태      (대충) 아니 뭐... 간단하게 잡아갈 놈이 있나봐...

소연      (버럭) 간단? 우리 식구 간단하게 죽을 뻔 한 거 있었어? 근데 그 애긴 왜 끄내? 서...설마 또 당신이?

진태      (발뺨) 미쳤어? 대한민국 형사가 나 뿐이여?

소연      (안도) 그래, 뇌가 있는 인간이든 그럴 리 없지! 근데 이번엔 누구 잡으려 오는 건데?

혼자 상념에 빠져있던 민영이 슬며시 끼어든다.

민영      흑시...

모두의 시선이 민영에게 향한다.

민영      (심각) 날 잡으려 오는 거 아냐? 죽기보다 힘들었겠지 날 잇는다는 게...

연아      (어이없음) 또 시작이네...

민영      철령씨가 꼭 다시 만날 거라 그랬거든~

진태      그거야 통일되면 보자고 한 거지~

민영      그때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

소연      누가? 니가?

민영      남자들 원래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거 몰라?

진태      철령이가 물불은 안 가려도 남북은 좀 가려야 헐텐데...

민영      이럴 때가 아니야!

민영이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마스크팩을 붙인 채 화장실로 튀어 들어간다.

소연                   이 년아! 철령이가 널 만나나 준대? 당신두 혹시 연락오더라도 무조건 썩까! 또 그 인간이랑  
 엮였다간 이혼이야! 알았어?  
 진태                   (찢린다.) 엮이긴! 나두 바빠!

둘러대긴 했지만 난감한 표정의 진태

## 21. 진태의 집, 안방 / 낮

민영이 몰래 들어와 책꽂이에 책을 꺼내 뒤지기 시작한다.

민영                   형부 비상금이 어디 있을 텐데....

공기청정기 뒤 커버를 열어보는 민영, 필터 앞에 만원짜리 여러 장이 보인다.

민영                   어쩐지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게 신통치 않더라니...

그때 방문을 열고 통화중인 진태가 들어온다. 민영 순식간에 몸을 날려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긴다.

진태                   또 철령이랑 수사하는 거 들통나든 이혼 당하게 생겼어! 광수대 복귀는 확실한 거지?  
 표반장               (소리) 복귀 뿐이나? 잘하면 특진감이야! 그니까 일주일만 버텨!  
 진태                   범인 잡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판에 마누라 속이는데 목숨을 걸고 있으니...

전화를 끊는 진태, 그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는 민영. 진태 깜짝 놀란다.

민영                   와~ 대박! 형부! 철령씨랑 또? 언니 속이고? 와!!! 어...언니!  
 진태                   (깜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문밖으로 나가려는 민영의 입을 틀어막는 진태

진태                   내가 백만원 줄게!!!  
 민영                   (고개를 저으며) 읊!!!읍!!!  
 진태                   이백!!! 내 1년치 용돈이야!

민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태가 민영을 풀어준다.

민영                   이백 받고 하나 더! 철령씨 가기 전에 무조건 만나게 해줘요!!!

진태                    그게 내 맘대로 돼? 철렁이도 취향이란게...

민영                    (밖을 향해) 언니음!!!

진태                    (입 틀어막으며) 알았어! 알았어!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하는 진태와 민영

## 22. 클럽 크로마, 스테이지 / 밤

현란한 조명,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젊은 남녀들. 그들 사이로 선글라스를 낀 장명준이 등장한다.  
장명준과 부하들이 펜트하우스로 향한다.

## 23. 클럽 크로마, 펜트하우스 / 밤

풀파티를 위한 공간, 풀에 들어가 있는 조사장이 미녀들을 양옆에 끼고 있다. 장명준을 보고도 거만한 자세로 물에서 나오지 않는 조사장. 피식 웃으며 담뱃불을 붙이는 장명준.

조사장                    (거들먹) 보스! 체포됐다는 소식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장명준                    조사장이 내 걱정 많이 했구나! 난 우리 조사장이 날 끈지르기 아인가 했다...

조사장                    (피식) 그럴리가요?

장명준                    길티? 네가 그럴 그릇이 아니다! ㅋㅋㅋ 준비시킨 돈은 어케됐니?

조사장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시간을 더...

수트를 입은 채로 조사장이 있는 물속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는 장명준  
조사장 코앞까지 온 장명준이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물 위에 한 장 한 장 띄운다.  
어린 여자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사진. 놀라는 조사장

장명준                    애미나이가 이쁘다야!

조사장                    내...내년이면 학교 들어갑니다.

장명준                    내 딸이 살아 있었으면 딱 이 나일 거인데.. (쓴웃음) 너 사람 살 발라서 담근 젓갈 맛 본적  
있서?

공포심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조사장. 장명준이 물고 있던 담배를 조사장 얼굴 앞 물에 끈다.

장명준                    맛 벨루 없어! 그거 아니? 네 주당이에서 구린내 나는 거! 처먹지 말거를 처먹어서 그카나?  
삼일 주가서! 돈 준비하라!

장명준이 바짝 쥔 조사장의 뺨을 톡톡 치고는 밖으로 나간다.

부하 (걱정스럽게) 돈 빼돌린 걸 눈치 챌 거 아닐까요?  
 조사장 Fuck!!!

조사장 똥 찹은 표정이 된다.

## 24. 남북 출입국 사무소 앞 / 낮

출입국 사무소 문이 열리며 철령이 걸어 나온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진태가 반갑게 손을 흔든다. 철령 놀라는 표정

철령 남조선에 형사가 형님뿐입니까?  
 진태 (두 팔을 벌리며) 구관이 명관 아니냐!

진태가 철령과 포옹하는척하며 철령의 허리춤에서 총을 찾는데 총이 없다.  
 당황한 진태에게 철령이 총을 내민다.

철령 공조수칙1 총기는 남측 형사가 보관한다!  
 진태 (피식) 제법이네? 수칙2, 불법무기 사용 금지!  
 철령 네?  
 진태 두루마리 휴지로 사람 패지 말라고!  
 철령 (피식) 알겠시요! 그나저나 배고프오! 일단 밥부터 먹으려 갑시다!  
 진태 (고개를 갸웃) 수... 수사 안하고?  
 철령 남녘 동포 세금으로 혈벗은 인민 몸보신 좀 합세다!

자동차를 향해 걸어가는 철령의 뒤통수에 대고

진태 혈벗긴! 야! 남들이 보든 내가 북한 형산줄 알아!

### <박스카 안>

멀리 주차된 박스카 안에서 양복쟁이와 선호가 철령과 진태를 감시중이다.

## 25. 장어집 / 낮

국도변에 위치한 민물장어집 앞에 검은색 박스카가 멈춘다.

### <박스카>

박스가 안의 양복쟁이가 무전기로 지시를 내린다.

양복쟁이                    감시조 투입.

커플로 위장한 국정원 남녀 요원이 장어집으로 들어간다.

### <장어집>

숯불 위의 장어가 먹음직스럽게 익고 있다.

큼지막한 장어 조각을 집어 먹는 철령, 그 모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진태.

### <플래쉬백 - 옥외 주차장, 꼭대기 층>

양복쟁이                    수사하세요 FM대로 !

진태                        네?

양복쟁이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캐세요. 약쟁이 하나 잡으러 왔겠어요? 분명 공공이가 있을테니...

### <장어집>

갯잎에 씹을 싸 한입에 먹는 철령을 바라보는 진태.

철령                        기름이 혁명적으루 흐릅네다.

진태                        너넨 암데나 혁명을 갖다 붙이냐!

철령                        기카문 뭐리합니까?

진태                        남조선 생활회화 레슨원! 강조할 땐, 나짜로 끝나는 말을 쓰면 돼! 존나! 겁나! 열나! 참나! 한 번 해봐!

철령                        (어색) 기름이 존나 흐릅다!

진태                        그러그러 겁나 잘한다 철령이! (눈치를 보며) 솔직히 이번엔 뭐냐? 장명준이란 약쟁이 하나 잡겠다고 온건 아니지?

주위를 살피며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하는 철령. 잔뜩 기대하는 진태.

그때 커플로 위장한 요원과 철령이 눈이 마주친다. 감시중이라는 걸 눈치 채는 철령.

철령                        (속삭이며) 겁나 잘 먹었습네다.

### <박스카>

도청 중이던 양복쟁이는 철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당황한다.

양복쟁이                    저...저거 뭐라는 거야! 소리 좀 올려봐!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는 신호.

### <장어집>

그 순간 손님으로 위장한 요원들의 이어폰에서 귀가 찢어질 듯 빠~ 잡음 소리가 울린다.  
요원들 깜짝 놀라 동시에 손을 귀에 댄다. 뺄뺄해진 요원들이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손을 내린다.  
이 모습을 보고 피식 웃는 철령. 진태도 요원들보고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쉰다.

철령                   그럼 수사 시작합시다.  
진태                   아니 그게 아니잖아!!!

철령이 밖으로 나간다. 진태가 따라 나서는데 양복쟁이로 부터 전화가 온다.

양복쟁이(소리)      임철령이 뭐래요?  
진태                   겁나 잘 먹었다는데요?  
양복쟁이(소리)      진짜! 이거예요? 또 뒤통수치면 가만 안있을겁니다! 일 똑바로 하세요!  
진태                   (억울) 진짜예요! 댁들이야 말로 티내지 말고 똑바로 좀 해요!

진태가 커플로 가장한 국정원 남녀 요원에게 다가가 역정을 낸다.

진태                   비싼 장어 다 타잖아! 컨셉이 뭐야? 연인이야? 불륜이야?

머리를 긁적이는 남녀요원들, 진태는 투덜대며 밖으로 나간다.

## 26. 진태의 차 / 낮

투덜대며 차에 올라타는 진태.

진태                   너 형 놀리고 그럴래? 저번처럼 몰래 탄 공공이로..  
철령                   남조선 공공이는 뭘미까? 도청? 아니든 또 수사 방해하믄서 뽕뽕이?  
진태                   아냐! 이번엔 수사 제대로 할거야  
철령                   진짜디요?  
진태                   승진까지 포기하고 슈퍼노트 동판 바다에 던진 게 누구냐? 차기성이한테 죽을 뻔 한게 누구  
                          식구야? 근데 날 못 믿어?  
철령                   (누그러지며) 미.. 믿슴다.

철령이 도마뱀 문양의 사진과 빨간 알약의 사진을 보여준다.

철령 이 문신을 한 놈들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신종마약을 유통하고 있을 겁니다.  
 진태 딸랑 사진 한 장 들고 무대뽀로?  
 철령 수사는 발로하는 거라고 배웠썬니다.  
 진태 (답답) 언제적 얘기를!!! 너넨 과학수사 몰라? 허긴 과학자들은 죄다 미사일 날리는데 갈아 넣었으니 허구헌 날 그모양 그꼴루...

진태가 열변을 토하다가 철령이 도끼눈을 뜨고 째려보자 움찔한다.

철령 (이 악물며) 그런 성은 뭐 뽀족수 있으시오?  
 진태 혁명적 방법이 있지! (어딘가 전화를 건다) 난데! 네들 큰 사건하고 싶다고 했지?

경쾌하게 출발하는 진태의 차

## 27.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진태의 차 교차 / 낮

### <달리는 진태의 차>

진태 보내준 사진 봤지? 그걸 거래하는 놈을 찾는 거야, 대한민국 과학수사 시범 좀 보여라!

### <사이버수사대>

종구의 모니터에 떠 있는 빨간 알약과 도마뱀 문신의 사진.  
 종구가 손가락과 목을 스트레칭하더니 검색을 시작한다. “신종마약, 엑스타시, RED PILL.” 키워드를 입력한다. 잠시 후 트위터에 올라온 여러 개의 불법광고가 보인다. “#처음 맛보는 아이스 팝니다. 퀄리티최상, 텔레그램ID : DOG1818, 입금즉시 강남지역 던지기 30분내 배달.”

오덕 떡밥 좀 뿌려볼게요~

종구가 광고에 올라온 ID 여러 곳에 메시지를 날린다.  
 “빨간약 구함” “빨간 아이스”

### <달리는 진태의 차>

진태 입질 좀 오나?

### <사이버수사대>

종구의 메신저로 판매자가 답장을 보낸다.

종구 30분 내 배달 가능하다는데요?

진태(소리) 인증 샷 보내라고 해!



잠시 후 오늘 자 신문과 빨간 알약이 든 봉투를 함께 찍은 사진이 전송된다. 약봉투에 선명하게 보이는 도마뱀 문양. 종구의 동공이 커진다.

오덕                      물었다!!!

<달리는 진태의 차>

진태                      빙고!!!

진태 뿌듯한 표정으로 철령을 바라본다.

## 28.    신사동 거리 ↔ CCTV 관제센터 교차 / 낮

<신사동>

유흥가거리. 주차 중인 차 안에 진태와 철령이 잠복중이다. 종구와 통화중인 진태

<CCTV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들과 함께 종구와 오덕이 수많은 모니터 화면을 지켜본다.

진태                      30분 내 배달이면 백퍼 오토바이야! 요 근처에서 뱅뱅 돌면서 망보는 놈을 찾아봐!

모니터에는 수많은 행인과 택배 배달원, 중국집 배달원들이 오가는 모습이 펼쳐진다.  
그때 오덕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친다.

오덕                      저기!!! 같은 자리를 세 번 지나간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건물화단에 몰래 뭔가를 버리는 모습이 보인다.  
헬멧을 쓴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고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곧바로 종구에게 “안국빌딩 서측 화단 검은비닐” 텔레그램 메시지가 도착한다.

종구                      용의자 발견! 안국빌딩 서측 화단이에요.

<신사동, 안국빌딩 화단>

달려온 진태와 철령. 화단에서 검은 비닐을 찾아 뜯어보면 도마뱀문양의 빨간알약 봉지가 보인다.

철령                      (다급함) 와 꾸물대요?! 얼렁 답쳐야디

진태                      (거들먹)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대가리 좋은 놈 있는 거야!

철령                      예?

## &lt;CCTV관제센터&gt;

CCTV화면으로 오토바이를 추적 중인 종구와 오덕.

종구                    용의자 현재 강남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중.

## &lt;도로&gt;

차에 올라 이동 중인 진태와 철령.

진태                    실실 가볼까!

## 29. 마약조직 아지트 앞 / 낮

오토바이가 건물 앞에 멈춰 선다. 헬멧을 벗은 남자(이하 문신남)가 건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코너를 돌아 도착하는 진태의 차. 철령이 차에서 내리려는 걸 진태가 붙잡는다.

진태                    괜찮을까?  
철령                    다칠까봐 걱정됩니까?  
진태                    걱정되지! 저 새끼들이 다칠까봐!  
철령                    (피식) 살살 하겠시오!

피식 웃으며 차에서 내리는 진태.

## 30. 마약조직 아지트 / 낮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진태와 철령.  
어두운 창고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마약범 예닐곱 명이 보인다.

진태                    소문 듣고 왔어! 여기가 뽕 맛집이라메?

두목으로 보이는 콧수염이 벌떡 일어나며

콧수염                뭐고? 문디 새끼야!  
진태                    하여튼 맛 집은 꼭 불친절하드라!!! (수갑을 꺼내며) 다들 꿰어 새끼들아!

문신남이 코웃음을 치며 칼을 뽑는다. 철령이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스캔한다.  
문신남이 목에 두른 수건과 고스톱 판 위의 생수병이 눈에 들어온다.

콧수염           (칼을 꺼내며) 딸랑 둘이 왔나? 뒤질라꼬!  
 철령           체포에 불응하든 자위권을 발동하잖어!!!  
 진태           형이 걱정되서 하는 말인데 니들 실비보험은 들어놨지?  
 문신남          뭔 개소리를 씨부리짖노?

문신남이 물고 있던 담배를 튕겨 진태에게 던지자 진태가 담배를 손으로 쳐낸다.  
 진태 호신용 삼단봉을 꺼내 착착착 펼친다.

진태           철령아 무기사용금지 10분간 해제다!  
 철령           3분이든 됩니다.

철령이 진태와 마주보며 씨익 웃으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액션씬이 시작된다.  
 공격하는 문신남의 수건을 철령이 낚아챈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물에 적신다.  
 진태는 콧수염의 칼을 피하며 삼단봉으로 뒷덜미를 내려친다..  
 그때 대여섯 명의 건달 지원군이 들이닥친다.  
 철령이 젖은 수건을 이용해 달려드는 건달들의 얼굴을 철썩철썩 공격한다.  
 맞은 놈들이 '아 따거'하며 얼굴을 감싸 쥘다.  
 건달들이 얼굴을 방어하자 철령이 반대로 낭심을 공격하며 능욕한다.  
 진태와 철령 서로 등을 맞대고 포위한 적과 싸운다.  
 진태는 삼단봉으로 발목이나 낭심 같은 급소를 때려 쓰러뜨린다.  
 철령도 젖은 수건으로 공격을 막고 상대방을 타격해 제압해 나간다.  
 이제 콧수염과 문신남 둘만 남았다.  
 철령은 문신남이 휘두르는 칼을 수건으로 감고 엮어치기로 땅바닥에 메다꽂는다.  
 진태는 콧수염이 칼을 휘두르자 삼단봉으로 손목을 내려친 후 명치를 공격한다.  
 쓰러진 콧수염을 진태가 삼단봉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철령이 진태를 진정시킨다.

철령           에 잡갔소!  
 진태           (고개를 절레절레) 간만에 손맛을 봤더니... 정신줄 놓을뻔 했네...

#### <잠시 후>

십여명의 건달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진태가 빨간 알약을 두목 앞에 던지며

진태           이 약! 어디서 났어?  
 콧수염          참보는 놈아들이 거래 트자꼬 샘플로 놓고 간갑니더. 말투가 조선족 같은데 급전이 필요한지  
                   혈값에 막 뿌리고 다닌다카데요.  
 진태           고갱님! 뽕 한번 시식해 보세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원플러스원 행사 중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번 맛보세요~ 이랬다고?

콧수염                    맞십니더 샘플로 받은 것만 처분하모 손 탈라고 했습니다. 믿어 주이소...

날카로운 눈으로 수색 중이던 철령이 현금뭉치가 든 가방을 발견한다. 인상이 구겨지는 콧수염.

철령                    혀털디말라! 이걸 뭐이가?

진태                    어이구 이정도든 가중처벌루다 벽에 똥칠할때나 나옴텐데? 어뜨케 노후준비는 좀 했고?

콧수염                    (절박) 행념요! 내 같은 골목상권 조져서 뭐 할껀니까? 그 세끼들 잡게 협조할게 선처 해 주이소! 얘? 좀 있으른 금마들이 그 돈 받으려 올갑니더

진태                    은제?

콧수염                    5시

철령과 진태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면 30분도 남지 않았다.

### 31. 마약조직 아지트 앞 / 낮

검은가방을 든 장명준의 부하 박상위와 김상사(30대 초)가 아지트로 오는 모습이 보인다..

창문 틈으로 박상위의 모습을 발견한 철령. 진태와 철령이 책상 밑으로 숨는다.

소파에 앉은 콧수염이 돈가방을 열어 현금을 보여주고 박상위는 빨간알약을 보여준다.

얼굴에 멍이 들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콧수염의 부하들을 수상하게 여기는 박상위.

숨어있던 진태와 철령. 일이 꼬였다는 걸 직감한다.

박상위가 탁자 위 볼펜을 집어 콧수염의 손등을 짚는다. 비명을 지르는 콧수염.

박상위와 김상사가 순식간에 마약과 돈가방을 챙긴다.

진태                    (총을 겨누며)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철령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박상위가 콧수염을 인질로 잡는다.

박상위                    니가 어뜨케 여기있니 그때 죽은 거 아니니?

철령                    장명준이 어디있니?

진태 식은땀을 흘리며 겨냥해 보지만 인질 때문에 쉽사리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

박상위가 콧수염을 진태 쪽으로 밀어버리며 창문을 깨고 아래로 뛰어 내린다.

박상위는 안전하게 착지를 하나 김상사는 전기줄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패대기 처진다.

기절하는 김상사. 멋지게 착지한 철령은 박상위를 뒤쫓는다.

계단으로 내려온 진태가 김상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마약가방을 압수한다.

진태는 김상사의 옷을 뒤져 여권과 핸드폰을 찾아낸다. 눈치를 보다 몰래 챙기는 진태.

### 32. 추격전 몽타쥬 / 낮

#### <골목길>

박상위와 철령의 전력질주. 진태 뒤쳐져 그들을 쫓는다.  
좁은 골목길을 추격하는 박상위와 철령.  
박상위는 골목길에 있던 쓰레기 더미들로 장애물을 만들며 도망친다.  
쓰레기 더미들을 뛰어 넘으며 거리를 좁히는 철령.

#### <차로>

철령이 박상위의 뒷덜미까지 추격하며 가까워진다.  
큰길가로 나온 박상위와 철령. 철령 손을 뻗어 박상위를 잡으려는 순간!  
빠르게 지나던 차량에 철령과 박상위가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  
본네트를 타고 구르는 철령과 박상위. 진태가 놀라서 달려간다.  
정신을 차린 박상위, 자신을 도와주러 오는 퀵 배달부를 밀쳐내고 오토바이를 빼앗아 달아난다.  
철령이 박상위를 쫓으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절룩거리며 멀어지는 오토바이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철령.

### 33. 중환자실 / 밤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으로 흐른다. 침상 위에는 혼수상태의 김상사가 누워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진태와 철령. 그때 다가오는 이형사.

**이형사** 뇌진탕증센데 신경안정제 때문에 내일 아침에나 깨어날 거라는데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표반장이 호통을 친다.

**표반장** 임철령씨!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이 난리야! 당신이 로보캡이야?

**진태** 아니~ 범인이 토끼는데 그럼 구경만 하고 있어?

**표반장** 어딜 상사한테 대들어! 너 안되겠어! 따라와!

진태를 끌고 가는 표반장, 철령은 입장이 난처해진다.

### 34. 병원 MRI실 ↔ 진태의 집 교차 / 밤

#### <MRI실>

표반장이 진태를 끌고 들어온다. 그곳엔 이미 양복쟁이가 기다리고 있다.

진태 (투덜) 철령이 재 통제가 안 돼! 나니까 이 정도...  
 양복쟁이 잘 했어! 잘 했어!

양복쟁이가 진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뒷사람 행세를 하자 진태 빈정 상한다.

표반장 그래! 인터폴 적색 수배중인 놈을 잡은거야 그뿐이나? 압수한 마약만 3kg야! 우리 팀 1년 치 실적 채운 거라구!  
 양복쟁이 구린내가 솔솔 나는데... 임철령 한테서 뭐 알아낸 거 없어요?

### <진태의 집>

빨래를 개고 있는 소연, 옆에는 마스크팩을 한 민영이 TV뉴스를 보고 있다.

앵커 오늘 도심 한복판 8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블랙박스 제보 영상보시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철령과 박상위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보인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민영

소연 저거 저거 임철령 아냐?  
 민영 어머 철령씨!  
 소연 아~ 오자마자 휘젓고 다니는구나! 어떻게 지난번이랑 똑같니~ 그래서 절대 임철령하고 엮이지 말라고 한 거야... 이번엔 네 형부 대신 누가 또 개고생 할런지...

뒤이어 진태가 철령과 합류하는 모습이 TV에 나온다.

소연 (마시던 커피를 뿜으며) 푼!!! 저 인간 또!

### <MRI실>

진태 (김상사의 핸드폰과 여권을 꺼낸다.) 철령이 몰래 챙긴 거야  
 표반장 잘 했어! 이걸 내가 분석 할 테니까 넌 저번처럼 철령이를 집으로 데꾸 가서 밥도먹이고 술도 멕이고..  
 진태 (발끈) 미쳤어 집에 데려가게? 마누라가 알면 난 죽어!!!!

그때 진태의 전화벨이 울린다. 화면에 뜬 “주인님”

진태 여...여보세요?  
 소연 너 죽을래? 지금 어디야? 임철령이랑! 당장 튀어 들어와!!!

## 35. 진태의 집 / 밤

소연이 이를 갈고 있고 그 앞에 진태가 무릎을 꿇는다. 철령이 눈치 없이 양반다리로 앉자 진태가 옆구리를 쿡 찌르고 철령이 눈치를 보다가 무릎 꿇는 자세로 바꾼다.

소연 (버럭) 우리 식구 죽을 뻔한거 잊었어? 왜 또 당신이 나서? 응?  
진태 나서긴!!! 나는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철령이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철령 (깜짝) 예? 제가 은제...

진태 철령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때 방문을 열고 단아한 옷차림의 민영이 등장한다.

민영 언니! 그 죽을 뻔한 걸 살려준 게 철령씨잖아!  
연아 그래! 생명의 은인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소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진태 어찌겠어 공무원이 까라면 까는거지, 이번엔 약쟁이 몇 놈 잡으러 온 거니까 지난번처럼 총쏘고 그럴 일 없어 안 그래? 철령아?  
철령 기..길티요!  
민영 (애교) 언니~

살짝 누그러지는 소연의 표정.

소연 철령씨! 이 집 좋지?  
철령 네 참 좋습네다.  
소연 사실 이게 우리 집 같아도 우리 게 아니야! 차도 마찬가지로...  
철령 제가 사는 집도 제 것이 아니라요, 전부 당의 소유니까니...  
소연 (답답) 비슷하긴 한데... 영끌이라고 다 빚이야~ 그러니까 빚 갚기 전까진 우리 연아 아빠... 살 아있어야 해!  
진태 아니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야?  
소연 (버럭) 기계면 돈을 잘 벌겠지! (진태깨갱) 사실 내가 진짜 갈라설려고 했는데...  
민영 막상 철령씨 얼굴 보니까 화를 못내겠지?  
소연 (피식) 아 몰라 몰라! 암튼 남자는 철령이 처럼 잘생기고 봐야돼  
철령 (멋적음) 저같이 흔해 빠진 얼굴이 뭐이가 잘 생겼다고...  
진태 흔해 빠져? 손흥민이 월클 아니더라는 망언 이후로 그딴 망언은 참이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철령이랑 같이 댕기는 내 기분 생각해 봤어?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들 시선이... 여기 보이진 않지만 벽이 있어!!!  
소연 시끄러! 얼른 씻고 밥이나 먹어!  
진태 (싱글벙글) 그들까?

천장, 가스 감지기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인다. 소형카메라다.

### 36. 진태의 집 앞, 박스카 / 밤

도청장치와 몰카로 진태의 집을 감시 중인 양복쟁이와 선호.

진태 가족과 철령의 얼굴 사진이 붙은 작전 상황판이 보인다.

선호가 포스트잇에 메모를 해서 철령의 사진 위에 붙인다. 내용은 “복에선 혼한 얼굴”

### 37. 장명준 은신처 / 밤

무기 상자를 여는 장명준의 부하. 안에는 기관총 여러 개가 들어있다.

기관총을 손에 드는 장명준, 박상위가 장명준에게 보고를 한다.

박상위                      광용이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림철령이 같이 있었습니다.

장명준                      철령이? (피식) 공화국에서 똥줄이 타는 갑다!

고개를 끄덕이는 장명준이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 38. 진태의 집, 베란다 / 밤

티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철령과 진태.

철령                      왜 나까지 죄인 만듭네까?

진태                      형이 얼마나 현장이 그리웠으면 그랬겠냐? 응?

철령                      암만기래두 공과 사는 정확히 분리 시켜서.....

진태                      (한탄) 그래 내가 그때 공사를 구분 못하고 슈퍼노트 동판을 바다에 던지는 바람에 승진도 못하고...

철령                      또또... 사골도 아니고 땀번을 우려먹습네까?

진태                      듣기 싫지? 그니까 나도 승진 한번 하자! 어떻게? 잡아야지! 누구를? 장명준이를! 그러니까 솔직해지자! 장명준이 대체 뭐길래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때려?

철령                      (고민) 장명준은 조중접경을 오가며 빙두를 밀매하다가 단속이 강화되자 복미로 근거지를 옮겨 중독성이 강한 신종빙두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악질적인 놈입니다.

진태                      신종빙두?

철령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써 대량생산이 가능 하다는 거이 특징 이디요!!

진태                      근데 무슨 공공이로 한국에 왔을까? 도망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철령                      그거이...



진태 (기대) 그래그래 어여 말해봐!  
 철령 나도 궁금합네다.

잔뜩 기대하던 진태가 김이 샌다.

철령 아까 그 놈한테선 무슨 단서 없었시오? 손전화기나 소지품...  
 진태 (당황) 암 것도 없더라고 보안이 철저한 놈들이야 (얼버무리며) 그나저나~ 맥주가 읊네... 좀만 기다려! 형이 얼릉 사올 테니까.

### 39. 진태의 집 근처, 골목길 / 밤

맥주가 든 봉지를 들고 걷는 진태, 표반장과 통화 중이다.

진태 장명준이. 미국에서 방귀 좀 끼고 다녔나봐!  
 표반장 그런 애가 한국에 굳이 왜 왔대?  
 진태 내가 누구야! 그것두 물어봤지!  
 표반장 (기대) 철령이가 뭐래?  
 진태 지도 궁금하대~  
 표반장 (답답) 그걸 알아내야지, 이 멍청아!  
 진태 자판긴줄 알아? 누르면 나오게? 쏘 기다려 봐!

걸어가던 진태가 국정원이 도청 중인 박스가 옆에 멈춰 자동차 유리창을 뚫히 쳐다본다..

#### <박스가 안>

진태의 통화를 도청 중이던 선호와 양복쟁이 숨죽이며 긴장한다.

선호 눈치 챘나?

진태가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뺏다. 안도하는 양복쟁이

#### <박스가 밖>

진태 근데 양복쟁이 그거 싸가지가 바가지 아냐? 어린 노무새끼가...  
 표반장 그 뺏질이 누가 낙하산으로 꽂아준 거 같은데! 저번에 슈퍼노트 못챙겨서 물먹었다더라!  
 진태 내가 맥였어? 지가 등신이니까 물을 퍼먹지!

#### <박스가 안>

열받은 양복쟁이가 뛰쳐나가려는 걸 선호가 말린다. 이를 악물며 인내하는 양복쟁이

진태는 다시 집으로 향한다.

#### 40. 진태의 집, 베란다 / 밤

베란다에서 위성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보고를 하는 철령

철령(문자) 장명준 심복 체포, 내일 심문 시작.

원형술(문자) 회담 시간까지 수습할 것, 서두르라

그때, 철령이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얼른 통신을 끊는다.

민영 (나지막이) 이걸 아니잖아요?

화들짝 놀란 철령이 고개를 들면, 양증맞은 파자마를 입은 민영이 서 있다.

철령 뭐 ...뭐 말입니까?

민영 Out of sight! Out of mind!

철령 예?

민영 이제 겨우 마음 정리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타나버리면...

철령 (시선 피한다) ...

민영 저 때문에 오신 거죠? 일은 핑계고...

철령 아니요! 정말 일 때문에 온 겁니다.

민영 거짓말!

철령 예?

민영 근데 왜 내 눈을 못 쳐다봐요?

철령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민영 뭐가요?

철령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다 안 된다는 거...

민영 그걸 왜 철령씨가 결정해요. 왜 해보기도 전에 포기 하냐고요?

철령 기카문 민영동무가 복과남을 통일 시켜보오. 기리타문야 아무 문제 없디 않갔습네까?

철령, 이렇게 말하고 연아 방으로 들어간다. 그런 철령을 보고 민영이 속이 상한 듯 남아있는 술을 병째 벌컥벌컥 완샷 해버린다.

민영 젠장!!!

<현관문>

현관문이 열리고 진태가 들어온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곡소리가 들린다.

### <베란다>

베란다로 들어서는 진태가 보면 민영이 바닥에 대자로 엎어진 채 술주정을 해대고 있고 옆에서는 소연이 짜증나는 표정으로 민영을 닦달하고 있다.

민영           (혀가 꼬여) 이 얼굴만으로도 애국하고 있는데! 또 통일을 위해 내가 나서야 되냐고~~~  
 소연           아휴~ 내가 못산다, 못 살아! 정신 차려, 이년아!  
 민영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토옹~ 일~~ 끄역~!!!!  
 진태           (같이 민영을 깨운다) 처제! 처제! 일어나! 들어가서 자야지! 철령이는 어디 간 거야?

### <연아의 방>

밖에서는 민영의 주정소리가 들리고... 철령은 빨쭙한 표정으로 사슴 같은 눈만 꿈뻑꿈뻑...

### <국정원 박스카>

선호가 메모한 포스트잇을 민영 사진에 붙인다. “개진상”

## 41. 진태의 집 / 아침

새댁처럼 차려입은 민영이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우며 흥얼거린다.

진태           아침부터 뭘 삼겹살이야!  
 민영           아침에 삼겹살 먹으면 뭐 불법인가?

민영이 큼직하게 찜을 써서 철령의 입에 밀어 넣는다.

민영           철령씨 많이 드세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철령           일없습시다. (힘에 밀리는 철령) 읊...

꾸역꾸역 먹는 철령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민영

소연           네가 뭘 돈으로... (진태를 쏘아보며) 당신 애 용돈 줬어?  
 진태           나 먹고 죽을 것 두 읊어...  
 소연           돈이 떨어져야 나가서 구걸이라도 할텐데...  
 민영           유투버가 어때서! 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래! 유 온리 리브 원스 올로 몰라?

그때 연아가 방에서 나오며 소리친다.

연아                   엄마! 내 돼지저금통 못 봤어? 이상하다... 방탄소년단 화보집 살 돈인데...

불안하게 동공이 흔들리는 민영, 진태도 좌불안석.

철령                   (눈치없이) 방탄소년단? 남조선에도 그런게 있구나야!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

철령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잠시 정적.

소연이 옆에 있던 파리채를 잡는 순간 민영이 쯤썩하게 도망친다.

소연                   (눈이 뒤집히며) 옳로? 골로 가게 해줄게! 이 도둑년!

아웅다웅하는 민영과 소연. 그때 진태의 전화벨이 울린다.

진태                   뭐? 깨어났다구!

철령                   (이때다 싶어) 어서 가시디요!

전쟁터를 황급히 탈출하는 진태와 철령

## 42. 병원, 중환자실 / 낮

### <중환자실 앞>

병원 복도를 달려오는 진태와 철령. 그런데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외사팀장이 앞을 막는다.

외사팀장           지금 심문중이니 돌아가세요!

진태               그게 뭘 소리에요?

외사팀장           얘기 못들었어요? 이제 우리 외사팀 소관이니 강형사님은 빠지세...

### <중환자실 안>

진태와 철령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다.

깨어난 김상사를 심문 중인 한 남자의 뒷모습, 돌아보면 잿이다.

철령               (놀람) 네가 어째!

진태               아는 사람이야?

잿이 공문서를 보이며 씨익 웃더니 갑자기 한국말을 한다.

잭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놈은 이제 내꺼다 알았어?  
 철령 (어이없음) 간나! 조선말 할 줄 알면서 날 속인거네?  
 잭 언제 물어 봤나? 마이 맘 이스 어 코리안!  
 철령 종이 쪼가리 치우라! 내가 잡았으니 내가 심문 하잖어!  
 잭 (놀리며) 데자부! 많이 본 시추에이션이지?

잭이 당했던 그대로 철령에게 갚아준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르는 철령.

진태 (답답) 도대체 뭘 소리들이야!  
 철령 장명준을 놓친 게 누구 때문인데 와 여기까지 게 와서 난리 판치네?  
 잭 나 때문이라고? 호송경로를 놈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철령 내가 알려줬단 말이니?  
 잭 몰래 핵폭탄이나 만드는 북한 놈을 어떻게 믿어?  
 진태 (눈치 없이) 철령아! 너네 진짜 핵폭탄 만든 거야?  
 철령 (짜증) 고걸 내래 어케 압니까? 니들은 핵무기 쟁여놓고 와 우리는 안된다기려니?  
 진태 (짜증) 고만들 해! 이러다 전쟁 나갔어!  
 잭 저 놈은 내가 수사한다.  
 철령 네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 에 내 전 재산 건다.  
 진태 너 재산 없잖아? 집도 당 소유라메?  
 철령 (짜증) 서영!!!  
 진태 대화로 풀자구! 하...하이! 나이스 투 땃쑤! 아임 코리안 디텍티브  
 잭 (진태를 얹잡아 보며) 호빗은 빠져! 야! 쏘리! 앤트맨인가?  
 진태 (뒷목잡으며) 뭐? 호... 호빗? 이 싸가지가!!

그때 표반장과 외사팀장이 들어온다.

외사팀장 표반장님, 부하 단속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뭡니까? 네?  
 표반장 (급신) 죄송합니다. 강형사 일단 나가자!  
 진태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남의 밥상에 왜?

끌려나가는 진태와 철령을 비웃는 잭의 얼굴에서 화면전환

### 43. 플래쉬백 - FBI NY 지부, 지부장실 / 낮

지부장이 김상사의 사진과 서류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지부장(영) 어제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잭(영) (놀라며) 그럼 장명준도 한국에 있을 겁니다.

지부장(영) 그런데 북한 형사 놈도 한국에 있다.

지부장이 서류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철령과 장명준이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이다.  
군복을 입은 두 사람 뒤에 현수막 “양골라 파병 전투원 환송회”

잭(영) 서로 아는 사이?

지부장(영) 그래! 놈이 장명준과 내통해서 호송경로를 유출한게 분명해! FBI 자존심 문제야! 우리 요원을 죽인 놈들은 반드시 미국 법정에 세워야한다! 당장 서울로 출발해...

분노하는 잭의 표정

#### 44. 병원, MRI실 / 낮

문을 팡! 열며 들어오는 양복쟁이, 뒤편으로 진태와 표반장.

양복쟁이 FBI가 치고 들어온 걸 뭘 수로 막습니까? 이렇게 된 걸 보면 분명 슈퍼노트 이상의 뭔가 있단 얘기죠! 그게 뭘지 알아내야 합니다.

진태 뭘 단서가 있어야지! 압수한 소지품에서 뭐 나온 거 없어?

표반장 핸드폰은 복구중이구... 여권을 조사해보니까 홀로그램까지 완벽하게 위조할 만한 기술자는 세계적으로 몇 명 없다는 거야.

#### <플래시백>

세르게이가 했던 말이 진태의 뇌리를 스친다. “KGB 기술자가 만든 거야. 홀로그램 카피까지 완벽하다! 이 정도 퀄리티는 한국에서 나밖에 못해!”

진태 세르게이 그 새끼야!!! 장명준이한테 여권이랑 대포폰 팔아먹었던 애긴데...

양복장이 그건 표반장한테 맡기시고 임철령을 캐보세요, 분명 숨기는게 있을 거예요!

#### 45. 병원, 복도 / 낮

철령이 원형술에게 핸드폰을 이용해 은밀히 보고 중이다.

철령(문자) 미국이 개입함.

원형술(문자) 자금책 행방은?

철령(문자) 아직 단서 무, 남측에 정보를 흘리고 도움 받겠음.

원형술(문자) 수락함

진태가 다가와 철령의 옆에 앉는다.

진태 (눈치보다) 우리가 누구냐? 오랑게가 쳐들어올 적마다 푼돌 몽쳐 국난을 극복한 한민족 아니냐? FBI 뺑질이한테 이대로 당할 거야? 형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철령 (조심스럽게) 장명준이 기술자를 데려와 마약을 생산한 것 같습니다.

진태 기술자? 그 애길 왜 이제 해?

철령 어데 까지나 추측임다. 맛보기를 뿌릴 만큼 많은 마약이 쉽게 밀반입 될 리 없잔습니까?

진태 마약 공장을 차려? 그럼 원료는?

#### 46. 경찰청, 광수대 사무실 / 낮

표반장과 이 형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범죄기록을 조사중이다.  
사이버수사대 오덕과 종구도 합류한 모습이다.

종구 일주일 전 화학물질 도난사건이 있었는데요?

진태 어디 봐봐! 뺑질시아나이드?

종구 원래 화장품 원료데 히로뽕으로 합성이 가능하답니다!

항급히 서류를 살피는 진태와 철령.

진태 경비원이 경추 골절로 사망! 이 새끼들 사람까지 죽여?

철령 놈들 짓입니다.

이형사 같이 도난당한 트럭이 당일 아침 용인IC를 빠져나간 게 마지막 흔적이네요.

철령 대량으로 마약을 만들든 맹독가스와 약취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진태 민가에서 떨어진 폐공장이나 창고 명단 좀 뽑아봐! 철령아 일단 용인으로 가자!

표반장 야 팔랑 돌이서 뭘 할러구!

진태가 출발하려다 말고 멈칫 돌아선다. 일하고 있는 오덕 옆의 드론이 눈에 들어온다.

진태 오덕아! 장난감 갖고 따라와!

#### 47. 병원 / 낮

##### <중환자실>

잭이 외사팀장의 통역을 통해 김상사를 심문하고 있다. 묵묵부답인 김상사.

잭(영)                    협조해라? 이렇게 버티면 전기의자 신세야! 다시는 가족을 못 본다구!  
 김상사                    (피식) 만날 가족 따위 없다!

그때 FBI 지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심문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가는 잭.  
 그 순간 김상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잭이 놓고 나간 서류에 꽂힌 클립을 포착한다.

#### <병원 복도>

지부장과 통화하는 잭

잭                    (영) 북한 형사는 따돌렸습니다.  
 지부장(소리)        (영) 알아낸 정보는?  
 잭                    (영) 쉽게 입을 열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 뺏습니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잭

#### 48. 고속도로, 진태의 차 / 낮

---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진태의 차.  
 마약공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의 정보를 전화로 보고받는다.

종구(소리) 열추 추렸는데 의심되는 곳이 한 300개 되네요!  
 진태                    뭐? 너무 많은데?  
 철령                    민가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만 추리자요!  
 진태                    그래! 더 추려봐!

#### 49. 병원, 중환자실 / 낮

---

김상사의 수액을 교환한 간호사가 감시 중이던 경찰과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간다.  
 눈치를 보던 김상사가 손을 펴자 안에서 클립이 나온다. 클립을 이용해 수갑을 풀기 시작한다.

#### 50. 철령과 진태 몽타쥬 / 낮

---

철령과 진태가 폐창고, 공장 등을 수색하지만 번번이 아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  
 오덕이 날린 드론이 하늘로 오른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진태와 철령은 더욱 초조해진다.

#### 51. 병원 / 낮

---



<병원, 모처 감시본부>

화면에는 김상사가 수갑을 풀려고 애쓰는 모습이 몰래카메라로 전송중이다.  
 잭과 외사팀 경찰들이 모여 모니터를 지켜본다.

잭                    *come on! You can do it!*

<인서트>

철컹하고 풀리는 김상사의 수갑.

잭                    *good job! I knew it*  
 외사팀장            (무전기로) 손님 받아라!

병원 여기저기 간호사와 의사로 위장한 경찰들이 무전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 복도>

김상사가 문틈으로 밖의 상황을 살핀다. 경비 중이던 제복 경찰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김상사가 옆 병실로 들어가 옷을 훔쳐 입고 비상계단으로 도망친다.  
 자는 척하던 경찰이 고개를 들며 무전으로 이 사실을 보고한다.

<병원, 모처 감시본부>

무전(소리) 너구리 굴 밖으로 나왔다.

CCTV로 지켜보던 잭과 외사팀도 김상사를 추격하기 위해 출동한다.

<병원, 응급실 입구>

응급실 밖으로 빠져나온 김상사가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는 구급차를 발견하고 올라탄다.  
 구급차가 출발하면 감시중이던 검은 헬멧의 오토바이가 뒤따른다.

## 52. 잭의 추적 몽타쥬 / 낮

---

<거리>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거리를 두고 검은헬멧의 오토바이가 뒤를 따른다.

<구급차>

김상사가 백미러를 보며 미행을 신경 쓰는데 검은 멧의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온다.

<오토바이>

검은헬멧                  독수리에게 바통을 넘기겠다.

#### <구급차>

백미러의 오토바이가 다른 쪽으로 사라진다. 어린아이처럼 안도하는 김상사.

#### <고속도로 상공>

하늘에서 구급차를 뒤쫓는 경찰 헬기

헬기(소리) 여기는 독수리! 아주 잘 보인다!

#### <잭이 탄 차>

추격하는 차량에서 보고를 받는 잭과 외사팀장.

### 53. 채석장 앞 / 낮

---

채석장 앞에 도착하는 진태의 자동차. 차에서 내리는데 진태의 전화벨이 울린다.

진태                  출동? (끊으며) 그 뺑질이 뭐 알아봤나 본데? 너 전재산 어떡하나?  
 철령                  (짜증) 형님!!!  
 오덕                  (지도를 보며) 채석장 규모가 엄청 큰데요? 드론 배터리도 다 떨어져서..  
 진태                  이판사판이야~ 무조건 띄워!

오덕 마지못해 드론을 하늘로 날린다. 진태와 철령이 드론 모니터에 집중한다.  
 높은 상공에서 수색을 하는 드론,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한다.

진태                  저 쪽에 폐창고 같은 데로 가봐!  
 오덕                  (모니터 경고등 보고) 이리다 추락해요!!!

그 순간 철령이 모니터 화면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발견한다.

철령                  도난당한 트럭 아닙니까?

### 54. 채석장, 폐창고 앞 / 낮

---

폐창고 앞에 멈추는 진태의 차  
 단망경으로 도난트럭 번호판을 확인하는 철령. 진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진태 (오덕에게) 넌 여기서 대기해! 십 분이 지나도 우리가 안 나오면!  
 오덕 퇴근 할까요?  
 진태 (답답) 등신아! 지원요청을 해야지!  
 오덕 아하!!!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진태와 철령.

## 55. 채석장, 폐창고 / 낮

진태와 철령이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 어두운 실내를 살펴보는 두 사람.  
 마약을 제조하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진태 버.. 벌써 튀거?

그 순간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보이고 김상사가 탄 구급차가 진입한다.  
 진태와 철령이 재빨리 몸을 숨긴다. 잠시 후 김상사가 안으로 들어온다.

김상사 대장동지!!

숨어서 지켜보던 진태와 철령, 김상사를 보고 놀란다.  
 진태가 총을 뽑아 나가려고 하는데 철령이 붙잡는다. 철령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킨다.  
 기둥에 C4 폭탄이 설치된 것이 보인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진태.

철령 (속삭이며) 함정입네다.

철령과 진태가 대피하려는 순간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린다.  
 김상사 벨소리를 향해 가면 테이블 위에 핸드폰과 기폭장치가 보인다. 전화를 받는 김상사.

장명준 (소리) 병원 밥은 달달하던?

김상사 (웃으며) 대장동지 탈출 했습다 어데 계심까?

장명준 (소리) 우리 김광용 동무 이르게 꼬리가 길어서 어카네?

김상사가 불길한 예감에 창밖을 보면 어느새 경찰들이 창고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

### <폐창고 밖>

잭이 외사팀장과 함께 차에서 내리며 지시를 내린다.

<채석장 도로>

장명준이 멀리 창고가 보이는 채석장 도로 위에서 망원경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장명준                    우리는 포로를 남기디 않는 거 잘 알디? 깔끔하게 설거디 하라!

<폐창고 안>

김상사 체념한 표정으로 탁상 위의 기폭장치를 집어 든다.

김상사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명령 받들가시오!

진태와 철령이 몰래 도망치려는 순간 경찰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진입한다.  
뒤따라 잭과 외사팀도 들어온다. 온몸에 빨간색 레이저가 겨눠지지만 김상사 미동도 하지 않는다.  
도망치려던 진태와 철령이 달려 나오며 외친다.

진,철                    함정이야 피해! 어서!

느닷없이 진태와 철령이 나타나자 잭과 외사팀장도 당황한다.

잭                        왓아유 두잉 히어?

김상사 기폭장치를 든 손을 들어 올린다.

잭                        (기폭장치를 보고) 오마이.... 런! 런!

모두 혼비백산 밖으로 뛰고 김상사가 눈을 질끈 감으며 기폭장치를 누른다.  
창고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한다.  
꽂지 빠지게 뛰던 진태와 철령이 간발의 차로 화염을 피해 몸을 날린다.  
그러나 한발 늦은 잭과 외사팀 대원들은 폭발의 충격에 큰부상을 당한다.  
진태가 쓰러진 외사팀장을 향해 달려간다.

진태                    괜찮아요?

외사팀장                (신음) 네!!

그때 잭이 달려와 철령에게 주먹을 날린다. 무방비로 맞고 쓰러지는 철령

잭                        네가 스파이지? 장명준이 어떻게 알고 폭탄을 설치했냐고!

잭이 주먹을 날리지만 이번엔 철령이 피하며 잭을 땅에 메다 쫓는다.  
 잭이 벌떡 일어나며 철령에게 달려들어 몸통을 들이받고 올라탄다.  
 철령이 두 발로 잭의 목을 감아 위기에서 빠져나온다.  
 잭의 주먹을 피하고 잭에게 주먹을 날리는 철령 잭이 쓰러진다.

**철령** (일어서며) 왜 내 탓이네? 내가 명청해서 번번히 당하는거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태가 달려와 철령에게 주먹을 날린다.

**철령** 아 왜 때래요?

바닥에 쓰러졌던 잭이 일어나며 진태에게 악수를 청한다.

**잭** 역시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야! 꼴 좋다. 북한놈!

이번엔 느닷없이 진태가 잭에게 주먹을 날린다.

**잭** (황당) What the!!!

**진태** 너도 똑같은 새끼야! 도전개편 뎀앤더머여! 여기가 네들 안방이야? 대한민국이 만만해? 둘 다 따라와!

## 56. 삼겹살 집 / 밤

불판에서 익어가는 삼겹살. 사이다잔에 소주를 팔팔 따르는 진태.  
 진태에게 맞은 철령과 잭 입 주변이 터지고 혈었다.

**진태** 자! 소독해!

진태가 먼저 원샷을 한다. 철령이 잭을 노려보더니 원샷을 한다. 잭도 지지 않으려고 원샷한다.  
 진태와 철령은 크~ 하며 술을 삼키지만 잭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진태** 철령이 너 잘 들어! (잭에게) 너도! 리슨 졸라 케어플리! 폭탄이 터져 경찰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어 비상사국이라구! 그런데 남, 북, 미국 최고의 형사가 모여가꼬 뭐하는 짓이야? 우리가 어벤져스라구! 근데 타노스가 손가락 튕길려는 판국에 아이언맨이랑 캡틴아메리카랑 지 잘났다고 싸우면 되겠어? 자존심 접고! 인터내셔널하게 공조하자! 숨겨놓은 정보 있으면 다 까고! 다 용서해줄테니까

**철령** 저 앓새끼래 아는 거 없시오!

**잭** 너는 거짓말쟁이야!

진태                    잭 너는 외사팀들 다 입원했는데 누구랑 공조할래? 철령이 너도 단서 다 날아갔어!!

철령과 잭이 진태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본다.

진태                    철령이 너부터 말해! 폭탄에 총질에 장명준이 정체가 뭐야?

철령이 고민하다 사진을 꺼내 놓는다. 잭이 봤던 철령과 명준이 함께 찍힌 단체사진이다.

진태                    둘이 아는 사이였어?

잭                      거짓말쟁이 맞지?

철령                    존경하는 선배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자는 아프리카 파병에 실전까지 경험한 군출신입니다. 부하들도 전부 전투원 출신들이구요 용병들이란 말 임미다.

진태                    그 애길 왜 이제 해! 마누라가 알면 난 죽었네! 진짜 이럴 거야?

철령                    다 용서해준다문서요?

진태                    (참을인!!!) 그..그래 그럼 용병을 불러들인 이유는 뭐야?

철령, 10억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말을 아낀다. 그 순간 잭이 나선다.

잭                      Money! (핸드폰으로 조사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한 달 전 프리츠 하버라는 ID로 이메일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장명준을 잡을 수 있었지, 난 그 프리츠 하버가 재미교포 마이클 조라고 생각한다. 마이클 조는 장명준의 돈을 ...음... 음...

진태                    돈세탁!

잭                      예스!

진태                    마이클조가 장명준을 배신했다는 얘기는 그 놈이 장명준 돈을 끌꺼?

잭                      빙고!

원형술이 했던 말이 철령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애써 표정을 숨기는 철령

“남조선에 그 10억불을 관리하는 자금책이 있다는 거이다!”

진태                    장명준이 그 돈을 되찾으려고 용병들을 데려온 거다? 그 돈이 도대체 얼마길래!!

철령                    (끊으며) 돈이 문제가 아니디요!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 단서가 없으니...

진태                    나한테 압수한 대포폰이 있지, 게다가 그걸 유통한 놈까지 알고 있거든!

철령                    아니! 압수 한거 없다 길디 않았시오?

진태                    너도 용병 얘기 안했잖아!

철령                    (한숨) 후~ 계속 하시디오.

진태                    그 놈만 잡으면 장명준이 대포폰 번호 따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단 거지!

진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철령과 잭, 소주가 든 잔을 드는 진태

진태                    이거 마시면 우리 공조하는 거다!

철령과 잭도 잠시 서로를 노려보다가 잔을 들어 부딪힌다.

벌컥벌컥 소주를 마시는 세 사람. 다마시고 크~ 하는 진태와 철령. 신기한 듯 바라보는 잭.

잭                    (피식) 근데 네들은 왜 크~ 하나?

진태                    그게 국룰이지! 소주는 크~ 맥주는 카~

철령                    해보라! 술맛이 혁명적으로 좋아진다!

잭 반신반의하며 소주를 벌컥 마시고 크~ 흥내를 낸다.

진태                    스웨이 읊잖어! 소울을 담아서 크오오~

잭                    (따라서) 크오오~

철령                    (답답) 넌 잘하는게 뭐이가? 복식호흡으루다 크오오~

잭 따라하다가 자기가 봐도 쑥스러운 지 웃음이 뺨 터진다.

지켜보던 진태와 철령도 따라서 꺄꺄대며 웃는다.

## 57. 진태집 가는 길 / 밤

술에 얼큰하게 취한 진태를 철령과 잭이 부축하며 골목길을 걷는다.

진태                    너네 수사반장 최불암 알아? 바바리코트에 담배 문게 졸라 멋있는거야! 그땐 최불암 나이가 엄청 많아 보였거든? 근데 내가 벌써 그 나이여! 최불암은 반장이라도 됐지 난 뭐냐구!!! 뽀스도 못갈아 입구 허구헌날 잠복해 봤자...

잭                    술주정 그만해라. 진태!

철령                    넌 형한테 진태가 뭐이가? 존댓말 써야디! 성 해보라 성!

잭                    난 존댓말 모른다. 아메리카는 다 친구 (철령에게) 그런 너는 몇살이나? 난 사십이야!!!

철령                    (머뭇대다가) 거..뭐 아메리칸 방식으로 하디 뭐...

비틀대며 걸어가는 세 남자의 뒷모습.

## 58. 진태의 집 / 밤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 트레이닝바지 바람의 민영이 바닥에 옷을 갈아 놓고 전신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민영. 거실이 난장판이다. 그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소연.

소연                    *이 년아, 철령이가 그르케 좋으냐?*  
 민영                    *언니! 난 철령씨가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 언니두 형부 침 봤을 때 그랬어?*  
 소연                    *이 박복한 년한테 그런 일이 생겼겠냐? 대학교 첫미팅 때 네 형부한테 낚이는 바람에...*  
 연아                    *(창밖을 보며) 아빠 저기 온다!!!*

잠시 후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진태가 들어온다. 소파에 앉아 있는 민영을 본 진태.

진태                    *무슨 컨셉이야?*

어느새 옷을 풀장착하고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는 민영의 가식적인 모습.  
 민영이 돌아보면 진태 너머 철령이 슬로우 모션으로 등장한다.  
 우아하게 들어오는 철령의 모습에 잠시 낮이 나가는 민영.  
 잠시 후 민영이 철령의 얼굴의 상처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린다.

민영                    *(놀라며) 철령씨! 다쳤어요?*  
 철령                    *일 없슴미다!*  
 민영                    *(호통) 내가 일이 있다구요! 어디 봐요!*

민영이 손수건으로 철령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순간 잭이 뒤편에 들어온다.  
 민영의 동공이 또다시 커지고 들고 있던 손수건을 떨어뜨린다.  
 잭이 철령보다 더 느린 슬로우비디오로 보인다. 민영이 철령을 팽개치고 잭에게 다가간다.

잭                        *how are you!*  
 민영                    *(조건반사) fine thank you and you?*

민영의 돌변한 모습에 황당한 철령.

진태                    *미국서 온 잭이야! FBI! 알지? 에프! 페더럴... 비 뷰로 아이.. (얼버무리며) 아 이 짝은 마이 와이프랑 시스타!*  
 잭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연                    *(콧소리) 어머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잭                        *한국에 미녀가 많다더니 사실이네요!*  
 진태                    *야! 너 존댓말 모른다더니!*

잭이 민영과 소연의 손등에 키스를 한다. 이 집 여자들은 완전히 흘렸다.



민영 (호들갑) 어머!! 내 정신 좀 봐! 물골이 말이 아니네 좀 씻으세요!

별안간 찬밥 신세가 된 철령이 섭섭함을 느낀다. 철령의 옆으로 다가온 진태.

진태 내 심정 이제 알겠냐?

#### <화장실>

샤워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 그러나 잭은 샤워하는 척하며 도청장치를 찾아낸다.  
지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잭.

잭 (영) 협조하는 척하며 정보를 흘렸습니다.

지부장 (영) 남한형사도 조심해 북한과 서로 싸우는 거 같아도 결국 같은 족속이니까!

잭 (영) 물론이죠, 도청 장치까지 해놓은 걸 보면 아주 독사 같은 놈이 분명해요!

#### <국정원 박스카>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양복쟁이가 머리를 쥐어뜯는다.

#### <연아의 방>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라디오를 틀어놓고 원형술에게 보고를 하는 철령.

철령 미국이 자금관리책을 알고 있습니다.

원형술 서두르라! 우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남조선형사 너무 믿지 말라, 한민족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 미국하고 한통속이니까.

철령 알겠습니다.

#### <국정원 박스카>

양복쟁이와 선호가 귀를 기울여 보지만 라디오 소리만 들린다.

선호 둘 다 눈치 칸 거 같은데요?

양복쟁이 강형사는?

선호 그 양반이야 뭐...

선호가 스위치를 돌리자 진태의 통화소리가 술술 흘러나온다.

#### <베란다>

표반장과 통화 중인 진태

진태           내가 누구야? 술 맥여서 다 조져놔지! 나야 정신력 하나로 버텼지만 철령이랑 잵은 둘다 해롱 거리고 있다! 애들이 보기보다 허술해! 근데 우리 집이 에어비앤비도 아니고, 밥값도 솔찬히 나가... 나중에 영수증 처리 해주는 거지?

표반장       지금 밥값이 문제야? 정신차려 국가대항전이 된 거라구!

진태       마이클 조라는 놈 좀 알아봐! 그 자식이 돈을 빼돌렸나봐! 장명준은 그 돈을 회수하러 온 거고!

그때, 어머머! 여자들 소리가 들린다. 안쪽을 보는 진태의 표정에 짜증이 밀려온다.

진태           저 자식이 진짜! 알았으니까 일단 끌어!

잭이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내며 나오자 민영과 소연 “어머머” 하며 눈을 가린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볼 건 다 보는 민영과 소연, 민영이 잵에게 옷을 건넨다

민영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잭 어깨의 흉터를 보고) 어머 상처? 많이 아팠겠다!

잭           러시안 마피아랑 파이트하다가 다친 상처다. (권투동작을 취하는 잵)

철령도 방에서 나오다 이 모습을 보고 비아냥댄다.

철령           오데 아들 끼리 까불다 생긴 생체기 갖고 자랑질이네? 우리 북에선 고딕 데는 빨간약도 아까워서 대충 된장이나 바르디!

느닷없이 진태가 옷통을 벗으며 끼어들다. 초라한 진태의 아저씨 몸매.

진태           대한민국 형사 자존심이 있지! 니들 사시미칼 맞아 봤어? 17대 1로 뎀비는 걸 1박2일에 걸쳐 막고 패고 밥 먹고 패고...

소연           당신은 17명 중 하나 아니었어?

진태           무슨 소리!!! 니들 호미에 찍혀 봤어? (상처 두개를 보이며) 왜 두개냐? 그 놈이 양손잡이여... 쌍호미!!! 그 뿐이든 말을 안 해...내가 소도둑 검거과정에서 소뿔에도 받혀본 사람이야! (엉덩이 깔려고 하며) 보여줘?

철령           유치하게 왜 이럽니까?

잭           폭탄해체 해 봤어? 난 폭탄처리반에서 3년이나 일했거든...

진태           그럼! 폭탄처리 많이 해봤지!! 대학 때 미팅 나가서... (소연을 턱으로 가리키며) 그 폭탄이랑 지금 같이 살잖아!

소연           (발끈) 뭐가 어째?

## &lt;국정원 박스카&gt;

세 사람의 무용담을 엮은 선히가 투덜댄다.

선히                    난 은제 영광의 상처 생겨보나? 낙하산 선배 잘못 만나 맨날 차에 쫓박혀...  
양복쟁이            뒤질래? 낙하산 아니거든!

## 59. 진태의 집 / 아침

부엌에서 민영이 호들갑스럽게 아침을 준비 중이다.

팬케이크 위에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얹어 눈코입을 만들고 하트 모양의 계란 후라이를 곁들인다..

진태                    웬 빵조각리? 한국인은 밥심이라면서...  
민영                    (커피를 따르며) 잭은 미국인이잖아요! 잭! 많이 드세요! 민영이가 만든 해피밀이에요!  
잭                      오 민영! 유 소 스위트!  
소연                    철렁이도 커피 좀 줄까?  
철령                    (빈정상해) 일없습시다. 쓰디쓴 거이 차라리 사약을 먹고 말디...

잭은 민영에게 잉크를 날리며 커피를 마신다. 흡사 커피 광고의 한 장면 같다.

이 집 여자들 모두 낮이 나가 잭을 바라본다. 똥 씹은 표정이 되는 진태와 철령.

철령                    눈병 났네? 끼부리지 말라!

## 60. 몽타주 / 낮 - 밤

## &lt;진태의 아파트 주차장&gt;

경쾌한 음악이 흐르며 선글라스를 낀 진태, 철령, 잭이 집을 나선다.

꽃미남들의 등장에 분리수거 중이던 동네 아줌마들의 입이 썩 벌어진다.

라면국물 묻은 컵라면 용기를 또 버리려던 아줌마가 진태를 보고 얼른 도로 담는다.

경비원 아저씨도 지나가는 진태에게 경례를 한다. 여유있게 경례를 받아주는 진태.

## &lt;광수대&gt;

모두 모인 가운데 종구가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종구                    세르게이의 SNS를 짹 뒤져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때, 종구가 미모의 백인여성의 사진을 화면에 띄운다. 남자들 이목이 집중된다.

세르게이와 나타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인다. 사진을 확대하면 서로 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

종구                    나타샤라는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인데 세르게이의 여자친구로 추정됩니다.  
 이형사                세르게이!!! 능력자였네!  
 오덕                    세르게이가 아무리 수배자 신세라고 해도 이 정도 미모의 여자친구를 방치하겠습니까?  
 진태                    좋아... 우리는 나타샤 쪽으로 잠복 들어갈테니까 네 들은 마이클 조를 더 파봐!

#### <잠복 오피스텔>

망원렌즈가 달린 감시카메라를 창문에 설치하는 철령.  
 접시안테나 모양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잭.  
 감시카메라를 보는 진태. 건너편 오피스텔에서 나타샤가 요가를 하고 있다.

철령                    3일 남았는데 그 안에 세르게이가 나타날까요?  
 진태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야..

#### <시간경과>

어느새 밤이 된 오피스텔촌. 이번엔 잭이 나타샤를 감시중이다.  
 누군가와 통화중인 나타샤.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한 진태.

진태                    감청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밖을 안나가네

#### <시간경과>

시간은 밤12를 넘기고 있다. 하품을 하는 진태, 철령과 잭을 보면 모두 지친 기색이다.  
 철령이 잭을 살펴보다가 말을 건다.

철령                    아직도 내가 장명준과 한패라고 생각해?  
 잭                        (고개를 저으며) 넌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야  
 진태                    잭! 근데 너는 왜 한국까지 와서 장명준을 잡으려는 거야  
 잭                        장명준을 잡아야 FBI를 배신한 쥐새끼를 잡을테니까  
 철령                    네 맘은 알겠지만 장명준이는 내가 데려가야 갇어  
 잭                        (비웃으며) 아니 그놈은 내 거다.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진태가 나선다.

진태                    또또! 국적은 달라도 다 같은 형사 아니냐! 네들은 잠복하다가 제일 돌아버릴 때가 언제냐? 난 굶똥이 마려울 때야! 내 괄약근이 중2병이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잠복 나가든 화장실 파악이 젤루다 중요해, 만약에 비데까지 있다? 그럼 심봤다지! 거사 치루고 따신 비데물이 똥꼬에 좌악!!! 그제 천국이지. 한번은 차에서 잠복하다 음료수병에 오줌을 똥는데 그걸 하필 표반장이

음료순줄 알고 원샷!! 색깔이 누르니까 게토레이줄 알더라구! 개 아직도 몰라!

웃음을 참던 철령과 잭이 뺨터진다. 그때 땡땡 벨이 울린다. 긴장하는 세 사람.  
철령이 인터폰으로 밖을 살핀다. 뜻밖에도 민영이 문 앞에 서 있다.

### <시간경과>

민영이 아기자기하게 음식을 담은 삼단 도시락을 꺼내 놓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뜨거운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크~ 소리는 내는 잭. 철령과 잭이 신기한 듯 쳐다본다.

진태 (피식) 그래 이제 스웨이 좀 나오네!

그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나타샤의 모습이 감시 카메라 모니터에 잡힌다.  
갑자기 분주해지는 사람들.

진태 나는 감청장치 달테니까 나타샤는 누가 미행할래?  
철령 내가 따라 가겠시오  
진태 넌 너무 눈에 띄어서 안돼!  
잭 그럼 내가 간다!  
진태 넌 눈에 더 띄어!  
민영 내가 철령씨랑 갈게요! 커플로 위장하면 괜찮을 거예요!  
철령 (당황) 커..커플이요?  
진태 (잠시 고민) 알았어! 조심들하고!!

출동하는 진태와 철령, 민영 커플

## 61. 편의점↔나타샤의 집↔잠복 오피스텔 교차 / 밤

### <편의점>

나타샤가 들어온다. 커플을 가장한 철령과 민영이 뒤따라 들어온다. 많이 어색하다.  
진열대 넘어 나타샤를 감시하는 철령과 민영.

민영 야 이거 엄청 짜릿하네!!! 경찰 일이 이렇게 스릴 넘치는 거였어요?  
철령 췌!!!

물건을 고르던 나타샤가 철령과 민영을 수상하게 쳐다본다. 철령이 당황하자 민영이 나선다.

민영 자기야 뭐해! 빨리 골라!

철령                    네? (아차) 그...그래 이걸로 할까!

철령이 서 있는 곳이 하필 콘돔 진열대 앞이다. 얼떨결에 콘돔을 한 움큼 집어 드는 철령. 얼굴이 시뻘게진다.

민영                    (다른 걸 집어 들며) 자기야 난 딸기 향 이게 좋더라!

다행히도 나타샤는 민영의 능청스런 연기 덕분에 의심의 시선을 거둔다.

### <나타샤의 집>

비상기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태, 조용히 들어와 집안을 살핀다.  
진태가 거실에 있는 탁자 밑에 감청장치를 숨기기 위해 엎드린다.

진태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 <잠복 오피스텔>

망원렌즈로 진태를 살펴보는 잭. 잭이 진태를 향해

잭                    (무전) Hurry up!

잭이 지켜온 듯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기지개를 켜다.

### <편의점>

물건을 계산중인 나타샤를 지켜보는 철령에게 민영이 속삭인다.

민영                    내 연기력 찡쪄? 언더커버가 적성에 딱 맞는데?

점원이 물건을 계산한다. 컵라면 두 개, 도시락 두 개.. 그 순간 철령이 이상한 낌새를 챈다.

철령                    두 개씩 사는 게 이상하디 않습니까?

민영                    그게 왜요?

이번엔 점원이 바구니에서 남성용 면도기를 꺼내 계산한다. 눈이 커지는 철령.

철령이                설마!!!

밖으로 달려 나가는 철령, 민영도 뒤따른다.

<나타샤의 집>

감청장치 설치중인 진태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온다. 몽둥이를 집어드는 그림자

<잠복 오피스텔>

하품을 하던 잭이 다시 카메라를 보는데 몽둥이를 든 세르게이의 모습을 발견한다.

잭 (무전) 진태! watch out!!

<나타샤의 집>

세르게이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순간, 진태가 재빨리 피한다.

세르게이 (진태를 알아본다.) 또 너냐?

진태 어디 짱박혔나 했더니 여기서 자가격리 중이었냐?

세르게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진태가 세르게이에게 업어치기 기술 들어간다.

‘팍’ 문을 열고 철령과 민영이 들이닥친다. 그 순간 공중에 뜬 세르게이가 유리탁자 위로 쿵! 떨어진다. 진태의 멋진 한판승. 수갑을 채우는 진태가 철령과 민영을 보고 씨익 웃는다.

## 62. 경찰청, 심문실 / 낮

세르게이를 심문하는 진태. 심문실 밖에서 유리거울을 통해 지켜보는 철령과 잭.

세르게이 난 몰라! 모른다구!

진태 빨리 붙어! 장명준한테 팔아먹은 대포폰 번호!

세르게이 귓구멍에 전봇대를 처박았어? 난 모른다구!!! 변호사나 불러줘!

진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네! 쏘련 놈한테까지 세금으로 변호사를 붙여주구

세르게이 그래서 내가 여기 눌러앉은 거지? 짬새들이 총을 쏘냐? 고문을 하나? 러시아 같으면 전기고문  
에 시베리아 감옥으로 직행이지...

진태 (버럭) 너 진짜 시베리아로 보내버린다! 버...벌써 협조 공문 띄웠거든!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  
기로 두 시간이면 오는 거 알지?

세르게이 (코웃음) 러시아 공무원들 졸라 게으르거든? 주토피아 나무늘보 봤지?

진태 너 후회하지 마!

그 순간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진태가 핸드폰을 꺼내 이형사에게 문자를 보낸다.

<심문실 밖>

이형사 (진동이 울린다.) 어? 강형사님이 왜?

진태가 보낸 문자 “나한테 전화해”

<심문실 안>

진태의 전화가 울린다. 진태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릴 때까지 일부러 받지 않는다.

세르게이 (비꼬며) 뭐해? 얼른 받아!  
 진태 (전화 받으며) 그래 이 형사! 공항에 도착했어?  
 이형사(소리) 공항? 무슨 공항이요?  
 진태 만났는데 이 짝으로 바로 오신다고? 좀 쉬다 오셔도 되는데...  
 이형사(소리) 도대체 뭘 소리예요!  
 진태 내일 이 자식 데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바로 떠나신다고? 뭐가 그리 급해!

진태의 통화내용에 서서히 관심을 보이는 세르게이

진태 기왕 한국 왔는데 한옥마을도 보고 광장시장 마약김밥도 드시면 좀 좋아?! (세르게이에게) 넌  
 이제 지웃 됐어! 불곰국 형사가 너 끌고 가려고 왔어!  
 세르게이 노...농담 마라!

피식 웃으며 심문실을 빠져나가는 진태.

<심문실 밖>

진태가 심문실 밖으로 나온다.

철령 러시아 형사 애긴 뭘미까?  
 진태 남북한, 미국 까지 모였는데 러시아 형사 빠지면 섭하지! 잭! 너 러시아 마피아랑 다구리 간적  
 있다고 했지?  
 잭 What?

진태가 잭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경찰청, 복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민영이 등장한다.

민영의 손에는 메이크업 가방과 몇 벌의 의상이 들려있다.

경찰들 시선이 쏠린다. 민영은 그 시선을 즐기며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뒤로 넘긴다.

### 63. 심문실 / 낮



## &lt;심문실 밖&gt;

민영이 분장용 콧수염을 누군가의 얼굴에 붙인다.

전신거울 앞에 선 잭, 러시아 경찰 제복을 입고 얼굴엔 근사한 콧수염이 붙어 있다.

잭 (투덜대며) *This is crazy!*  
 진태 지금부터 너는 푸도프킨 쿨레쇼프 타르코프스키 형사다. 명심해!  
 잭 러시아 말은 욱밖에 모르는데..  
 철령 기거른 충분하디  
 민영 욱은 기세가 중요해요! 눈을 부라리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오케이?  
 잭 (심호흡하며) *OK! let's do this (그래 해보자!)*

## &lt;심문실 안&gt;

심문실 안으로 들어오는 진태, 안쓰런 표정으로 세르게이를 바라본다.

진태 형이 시베리아로 널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세르게이 (피식) 뭐 소리야?

그때 문이 벌럭 열리며 러시아 경찰제복을 입은 잭이 등장한다. 토끼 눈이 되는 세르게이

세르게이 *Ротogi мне (살려주세요!)*  
 잭 *Заткнись урод (입닥쳐 병신아!)*

잭이 세르게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른다. 기겁하는 세르게이

세르게이 혀... 형! 살려줘!  
 진태 형도 명분이 있어야 도와주지...

철령과 이형사가 겨우 잭을 떼어 놓는다.

잠시 진정하는 척하다가 다시 세르게이에게 달려드는 잭

잭 *У тебя отец бомжара!(니 애비는 거지새끼야!)*  
 세르게이 버...번호 적어! 010...  
 진태 (귀를 후비며) 귓구멍에 전봇대를 쳐박아서 그른가 잘 안들리네...  
 세르게이 (더크게) 010-6272....

진태가 여유있게 번호를 받아 적는다.

#### 64. 장명준 은신처 / 밤

---

실험용 쥐가 든 밀폐된 유리상자가 보인다.

장명준이 손에든 기폭장치를 누르면 유리상자 안으로 무색무취의 가스가 주입된다.

발버둥치던 실험용 쥐들이 금새 죽어 버린다. 그 모습을 보며 잔인하게 웃는 장명준.

하지만 김철수는 두려운 표정이다.

김철수                   이케까지 해야 갔습니까?

장명준                   왜? 마음이 말랑말랑 해지네?

김철수                   기린 건 아니구... 무고한 사람들까지...

장명준                   당한 만큼 갚아 줘야디! 안기래?

#### 65. 장명준 미니밴, 안 / 밤

---

이동 중인 장명준의 차량. 박상위와 부하들이 장전한 총을 챙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전광판에 흘러나오는 TV 뉴스.

앵커(소리) 북미고위급 회담을 위한 북측대표단이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개최될 이번 회담은 이례적으로 권력서열 5위 김정택이 나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광판 속 김정택의 모습을 노려보는 장명준

#### 66. 경찰청, 광수대 사무실 / 밤

---

모두 종구의 모니터를 집중하고 있다. 그때 지도에 대포폰의 위치가 뜬다.

종구                   대포폰 위치 뜹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방향

진태                   이 자식들 어디로 가는 거지?

그때 이형사가 달려 들어온다.

이형사                   압수한 핸드폰 기지국 접속 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마이클조가 소유한 클럽중 하나를 방문했더라구요... 크로마라고...

민영                   (끼어들며) 크로마? 대박!

진태                   장명준이 마이클조를 만나러 간다?

표반장                    증거도 없고 영장도 없는데,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목이 달아나!

진태                    내가 바보야? 손님인 척 들어가 있다가 장명준이 나타나면 현행범으루다!

민영                    (답답) 형부 클럽에 안 가봤죠? VIP는 룸에서 놀기 때문에 밖에선 알 수가 없어요!

진태                    룸? 영장도 없고 어찌지?

민영                    영장없이 수색할 방법이 있긴 한데...

철령                    ???

민영                    내가 클럽 죽순... 아니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내가 클럽에 뜨면 어뜨케 되느냐? 자~연스럽  
게 남자들이 꼬이면서 부킹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룸저룸에서... 소시적에 내가 룸이란 룸은  
다 평정했잖아... 걸어 다니는 수색영장이지... 말도 마 진짜. 근데 지금 이 꼴로 거길 간다구  
요?

진태                    그럼?

궁금한 표정의 진태, 철령, 잭

## 67. 클럽 크로마, 앞 / 밤

클럽에 입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 줄 속에 진태 일행이 보인다.  
철령과 민영은 커플로 위장한 채 앞쪽에 서 있고 몇미터 간격을 두고 진태와 잭이 보인다.

진태                    먼저 들어가 금방 따라 갈테니까?

철령                    성은요?

민영                    형부는 어차피 뺨지예요!

진태                    그래! 난 다른 수가 있으니까!

진태가 건물 뒤로 향한다.

## 68. 클럽 크로마, 스테이지 / 밤

클럽 안으로 들어오는 철령과 잭. 철령은 화려한 음악과 조명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민영이 꽃미남을 양옆에 끼고 등장하자 여자들의 시선이 민영에게 쏠린다. 뿌듯한 표정의 민영.

철령                    조심하시라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총알 같이 가겠시오.

민영                    총알 같이?

철령                    (수줍게) 총알보다는 느리겠지만 서두...

민영                    (씨익 웃으며) 알았어요, 자! 영장 집행 들어갑니다!

민영이 스테이지 중앙으로 나가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민영의 카리스마 넘치는 춤에 스테이지가 민영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비워지고 관심이 쏠린다.  
 철령은 민영의 매력적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얼굴이 상기되는 철령.  
 그 순간, 철령의 감정에 찬물을 끼얹듯 원형술로부터 문자가 도착한다.

원형술(문자)      서울 도착했다, 상황보고하라  
 철령(문자) 매복 중 곧 사냥 개시  
 원형술(문자)      남조선, 미국 따돌리고 신속히 복귀하라.  
 철령(문자) 접수!

## 69. 클럽 크로마, 뒷문 / 밤

진태가 뒷문 쪽을 살펴보면 주류납품 트럭이 서 있고 웨이터들이 술을 안으로 나르고 있다.  
 진태가 자켓을 벗자 안에 입고 있던 웨이터 복장이 드러난다.  
 천연덕스럽게 맥주상자를 들쳐 메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진태.  
 진태가 사라지자 잠시 후 멈춰서는 SUV, 장명준과 부하들이 차에서 내린다.

## 70. 클럽 크로마, 펜트하우스 / 밤

조사장 부하가 금속탐지기로 장명준과 박상위의 몸을 수색한다. 아무런 무기도 나오지 않는다.  
 조사장과 마주한 장명준. 양측 부하들도 팽팽한 긴장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

장명준      많이들 모였구만, 오늘 회식 이서?

조사장이 안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인다.

조사장      내가 생각을 해봤지! (다리를 꼬며) 여기 10억불이 있는데 이게 한 놈만 제끼면 내 꺼드라구요!

장명준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조사장      그르게 사업 잘 하구 있는데 왜 갑자기 돈을 빼시겠다는 거야? 어차피 보스는 도망자 신세야~ 이돈! 어차피 줘도 못 드셔!

조사장이 장명준 앞에 돈가방을 던지듯이 내려놓는다. 열린 지퍼로 보이는 달러 다발들.

조사장      500만 불이면 필리핀서 쟁박힐만 할겁니다. 생활비는 따박따박 챙겨드릴게! 귀농한다고 생각하시구...

장명준      답판이 사내답구만기래, 생각 좀 해 보게 술 한 잔 내오라!

조사장      (피식) 끝까지 똥폼은!!! 여기 만수르 세트 하나 가져와!

## 71. 클럽 크로마 / 밤

## &lt;스태이지&gt;

철령과 민영을 지켜보던 잭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 &lt;주방 앞 복도&gt;

스태이지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진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다.

진태                    왜?  
 잭                    당신은 속고 있어! 임철령은 장명준 뿐만 아니라 마약자금 10억불을 찾으러 온거다.  
 진태                    10억불?  
 잭                    그 돈이 복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핵무기 개발에 쓰겠지? 남한도 그걸 원치는 않을 텐데? 난  
                          장명준만 잡으면 돼! 넌 10억불을 챙겨! 어느 편에 설지 잘 생각해!  
 진태                    (전화를 끊으며) 아이씨! 중간에서 돌아버리겠네!

그 순간, 누군가 진태의 귀를 잡아당긴다.

팀장                    이 새끼야! 일손 모자라 죽겠구만 여기서 농땡이 치고 있네... 얼른 주방으로 가봐! 펜트하우스  
                          에 사장님 VIP 떠서 만수르 세트 나가니까!  
 진태                    펜트하우스 사장님 VIP요? 아~

진태가 주방 안으로 들어가며 급히 전화를 건다.

진태                    표반장! 경찰 역사상 범죄수의 환수 최고액이 얼마나?  
 표반장(소리)        글썄 몇 십억 되겠지!  
 진태                    장명준 마약자금이 자그만치 10억불이야! 1조가 넘어!  
 표반장(소리)        10억불? 그게 공공이었구만!  
 진태                    그 돈만 챙기면 역대급 실적 올리는 거야! 어서 양복쟁이한테 연락해!

## &lt;스태이지&gt;

민영을 관심있게 지켜보던 웨이터가 민영의 손목을 잡고 어딘가로 데리고 간다.

민영                    (철령에게 윈크) 아~ 나 싫다니까~

장명준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살피던 철령의 시야에서 민영이 사라진다.  
 당황한 철령이 민영을 찾아 움직인다. 잭도 철령이 사라진 방향으로 뒤따른다.

## 72. 클럽 크로마, VIP룸 / 밤

웨이터에게 끌려온 민영이 VIP룸 안에서 장명준을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민영 옆의 여자는 뭘 잘못 먹었는지 눈이 풀려 해롱대고 남자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는 게 영 수상하다. 민영이 양아치1(20대 중, 남)이 몰래 술잔에 가루를 타는 것을 본다.

민영이 자리를 피하려는데 양아치1이 술잔을 들고 민영 옆에 앉는다.

양아치1            자기는 얼굴만 청순한 게 아니라 행동도 조신하네. (술을 권하며) 한잔할까 우리?

민영                (먹는 시늉) 아, 네....

양아치1            왜 이래! 쪽 마셔~ 재밌게 놀려고 온 거 아냐?

양아치1이 슬쩍 허벅지를 만지려하자 민영이 손으로 막는다.

민영                이르지 마시죠.

양아치1이 다시 몸을 더듬으려고 하자 벌떡 일어나는 민영. 붙잡는 양아치1

민영                놔라...

양아치1            알았어! 알았어! (5만원짜리 몇 장 집어주며) 됐지?

민영                (어이없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양아치1            니가 누군데?

그 말과 동시에 민영 니킥으로 양아치1의 낭심을 걸어챈다.

민영                낭심 폭격기! 이 새끼야!!!!

양아치1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진다.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

민영                잘 들어! 누나가 가리봉동 낭심 폭격기라고! 누나한테 너처럼 방울 두 쪽 까인 애들만 4열 종대 앉아 번호로 연병장 다섯 바퀴다. 새끼!

그러자 옆에 있던 양아치2가 민영을 때리기 위해 팔을 치켜든다.

양아치2            이년이 돌았나?

민영                (화들짝 놀라 웅크리며) 끼아아악!!!!

하지만 양아치2의 팔을 휘어 감는 손. 철렁이다.

철령                    여성한테는 예의를 지켜야!  
 민영                    (철령을 보고 뿔난다) 철령씨...  
 양아치2                그지 같은 것들이!!!!

양아치2가 다른 쪽 주먹을 철령에게 날리지만 철령 여유있게 피하며 양아치를 벽에 처박는다.  
 동시에 철령을 향해 달려드는 양아치 일행. 그러나 순식간에 넷을 제압하는 철령.  
 정신을 차린 양아치1이 병을 깨서 민영을 위협하며 인질로 잡는다.  
 순간 '퍽!' 소리와 함께 양아치가 쓰러진다. 어느새 나타난 잭이 서 있다.  
 미소 짓는 잭, 말없이 바라보는 철령과 민영.

잭                        You're welcome  
 민영                    (또 뿔난다) 두 사람 자꾸 이러면 어쩌라고 나는 한 명인데.

### 73. 클럽 크로마, 펜트하우스 / 밤

펜트하우스로 만수르 세트를 들고 오는 웨이터의 행렬. 맨 뒤에 접시를 든 진태가 보인다.  
 진태가 박상위를 보고 얼른 접시로 얼굴을 가린다. 두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장명준                조사장아... 뽀스리기 빼먹는거 까진 봐줄라 했는데... 주제파악을 했어야!  
 조사장                너야 말로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내가 아직도 따까린줄 알아?

조사장이 갑자기 총을 뽑아 장명준 이마를 겨누자, 조사장 부하들도 모두 총을 뽑아 겨냥한다.

장명준                비싼 술 시켰으면 맛은 봐야!  
 조사장                (조소 섞인 웃음)

장명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샴페인이 담긴 얼음통에 손을 집어넣는다.  
 그때 웨이터 중 한명의 귀밑 도마뱀문신을 발견하는 진태. 그의 등 뒤에 숨겨진 권총.  
 그 순간 장명준이 얼음통 속에 숨겨진 권총을 집어 든다.  
 박상위가 전광석화처럼 조사장 부하가 겨누는 총을 빼앗고 인간방패 삼아 총격전이 시작된다.  
 동시에 장명준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총으로 조사장 무릎을 아작 낸다.

진태                    (소파뒤로 몸을 날리며) 니미럴!!!!

웨이터로 위장한 장명준의 부하까지 가세하자 조사장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된다.  
 장명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사장의 이마에 총을 겨눈다.  
 장명준이 조사장의 안주머니에서 USB장치를 꺼낸다. 진태가 USB장치를 유심히 바라본다.

장명준                돈이란 거이 마약이랑 똑같지 않았니? 지가 뒤질 때까지 계속 쳐먹는 거이!  
 조사장                말이 많아! 죽일려면 빨리 죽여!

지켜보던 김철수가 갑자기 나선다.

김철수                그만!!! 장동무 돈도 찼았으니까 이제 그만!

장명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김철수를 총으로 겨눈다. 당황하는 김철수.

장명준                네가 FBI에 제보한 걸 모를 줄 알아서?  
 김철수                (착잡) 이보오 우린 너무 많이 왔소! 더 늦기 전에...

장명준이 가차 없이 방아쇠를 당기자 김철수가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다시 조사장을 겨누는 장명준, '탕' 소리와 함께 조사장이 고꾸라진다.  
 하필이면 그때 진태 전화의 진동이 울린다. 진태 화들짝 놀라 전화를 보면 민영의 전화다.  
 인기척을 느낀 장명준이 진태가 숨은 소파로 고개를 돌린다.  
 진태가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긴급 펜트하우스 장명준"  
 박상위가 총을 겨누며 진태가 숨은 소파로 다가온다. 진태도 여차하면 쏘기 위해 총을 꺼낸다.

## 74. 클럽 크로마, 복도 / 밤

민영이 진태에게 전화를 하고 있다.

민영                전화 안 받는데...

스테이지가 내려다보이는 난간에서 철령과 잭이 진태를 찾고 있고  
 그때, 민영의 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다.

민영                펜트하우스 긴급상황이래요!  
 철령                민영씨는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

철령과 잭이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린다.

### <펜트하우스 입구, 계단>

철령과 잭이 문에 뚫린 총알구멍을 보고 안에서 총격전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철령이 주위를 살피다 소화기를 집어 든다.  
 잭이 손을 복잡하게 움직이며 철령에게 수신호를 보낸다. 철령은 뭘 개소리냐는 표정.



철령 (짜증) 바로 옆인데 말로 하라!  
 잭 (답답) 원투쓰리 오케이?  
 철령 어!  
 잭 원, 투 쓰

순간, 철령이 잭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나머지 한쪽을 벽에 붙은 파이프에 채운다.

잭 You bastard!!!  
 철령 미안하다!

잭을 뒤로하고 달려가는 철령

#### <클럽 2층, 펜트하우스, 안>

박상위가 숨어있는 진태를 발견하고 총을 쏘려는 순간 철령이 달려 들어온다.  
 철령은 소화기를 공중으로 던진 후 앞구르기를 하며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 공중에 떠있는 소화기를 명중시킨다. 소화기가 뿔뿔하며 연막탄처럼 연기가 자욱해진다.  
 앞이 보이지 않자 장명준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총구를 사방으로 겨눈다.  
 연기 속에서 철령이 저승사자처럼 나타나 부하들을 하나둘 제압한다.  
 장명준이 철령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죽어가는 김철수 쪽으로 몸을 날려 피하는 철령.

김철수 내...가 프리츠 하버요! 막아야 해! 학살을... (숨을 거둔다.)

그때, 도망치기 시작하는 장명준과 박상위, 철령과 진태가 뒤쫓기 시작한다.

#### <클럽 입구>

국정원 양복쟁이가 특공대와 함께 도착한다. 진입을 시작하는 특공대.

#### <스태이지>

민영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 당황하며 대피하기 시작한다.

#### <클럽계단>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특공대원들의 진입이 늦어진다.

양복쟁이 뭐해 새끼들아! 서둘러 어서!

#### <펜트하우스 입구, 계단>

잭이 수갑이 채워진 파이프를 통째로 뜯어내고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달려 나간다.

<주방>

대규모 주방시설을 통과해 달리는 장명준 일당과 추격하는 진태와 철령.

<클럽 뒷문>

장명준 일당이 달려나와 대기 중이던 뱅에 올라타자 뱅이 급출발한다.

뒤따라 나온 철령과 진태가 총을 겨눈다. 그때 뱅의 선루프로 장명준이 기관총을 들고 나타난다.

동시에 방아쇠를 당기는 철령과 장명준.

기관총탄이 사방으로 날아오지만 철령은 끝까지 차량을 조준한다.

철령의 총알에 타이어가 터지며 뱅이 전복된다.

철령과 진태가 뱅으로 달려가 차 안으로 총을 겨눈다.

그러나 차 안에 아무도 없다. 바닥에 핏자국을 보고 뒤쫓는 철령과 진태

<골목길>

코너를 돌며 총을 겨누는 철령과 진태.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장명준이 보인다.

진태가 달려가 장명준을 덮쳐 쓰러뜨린다.

진태가 신이 나서 수갑을 꺼내 장명준의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

철령이 갑자기 진태의 뒤통수를 가격한다. 쓰러지는 진태.

진태

큭!! 처...철령이 너!

철령

(진태를 물끄러미 보며) 성... 또 신세 짐미다!

철령이 장명준의 옷 속에서 계좌정보와 인증용 USB를 찾아내 안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철령이 장명준에게 한쪽 수갑을 채우고 나머지 한쪽을 자신의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

'탕'소리와 함께 철령 옆으로 총알이 날아온다. 멈칫하는 철령. 총을 든 잭이 보인다.

잭

Freeze!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철령과 잭

철령

죄인은 내가 데려간다. 글티만 내가 찾는 쥐새끼는 내가 밝혀 주잖아!

철령이 나머지 수갑을 자신의 손목에 채운다. 그러나 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잭.

요란한 군화 발자국소리. 국정원 특공대와 양복쟁이가 철령 주위를 포위한다.

철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 중좌 림철령이다. 북,남 합의에 따라 북측 대표단으로 인도를 요청한다.

양복쟁이가 한숨을 쉬며 허공에 발길질을 한다.

양복쟁이                씨! 또 당했네!

인서트 - 아침이 밝아오는 도시의 풍경

## 75. 클럽 크로마, 앞 / 새벽

진태와 잭이 구급차에서 찰과상을 치료받고 있다. 찹찹거리며 다가오는 양복쟁이.

양복쟁이                도대체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설마 또 임철령과 한통속 인거 아니죠?  
진태                      (발끈) 뭘 소리에요? 내가 밥상 다 차려놨는데 당신들이 늦은 거 아닙니까!  
양복쟁이                자그만치 10억불이에요! 그게 북한으로 들어가면! 당신이나 나나 옷 벗어야 한다구!

그때 선호가 급하게 문을 열어 보고한다.

선호                      장명준 일당 차량을 평택항 인근 발견했습니다. 중국으로 밀항하려는 것 같은데요!  
잭                        (벌떡 일어나며) Let's go!  
양복쟁이                워!워! 설거지는 우리가 맡을 거니까 당신은 내일 비행기로 양키 고향 하시고! 강형사는 집에  
                                가서 쉬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폭 쉬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진태                      (억울한 표정) 그게 왜 내 책임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구만 나보고 어찌라구!!!

양복쟁이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선호가 뒤따른다.

선호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양복쟁이                주제파악 못하고 나대지 말고 강형사 집 감시장치나 수거해!  
진태                      (놀라며) 가.. 감시장치라니?  
양복쟁이                우리가 당신 믿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순진하시네~ 그러니까 빨갱이한테 뒤통수를 쳐맞지 그  
                                것 두, 두 번씩이나!  
진태                      이런 개새끼!

진태가 양복쟁이에게 달려들지만 잭과 선호가 뜯어말린다.

인서트 - 꽉 막힌 테헤란로. 북측대표단 숙소가 보인다.

## 76. 호텔, 북측 대표단 숙소 / 아침

삼엄한 경비 속에 호텔 한 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 북측대표단의 숙소.  
철령이 원형술과 마주한다.

원형술                   수고 해서, 김철수는?  
철령                     (착잡함) 죽었습니다.  
원형술                   당의 위협요소는 모두 제거되었구만!

그때 문을 열고 북측대표 김정택이 들어온다.

원형술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한 림철령 동무 미다.  
김정택                   수고 많았구만 기레! 스위스 은행 보안장치는?

원형술이 김정택에게 USB를 건넨다. 김정택이 안주머니에 USB를 넣는다.

김정택                   (악수를 청하며) 동무야 말로 당의 영웅이요! 큰 포상을 약속하거서!

철령이 김정택의 손목 안쪽에 문신을 발견한다. 장명준과 같은 도마뱀 문신이다.

철령                     !!!!

## 77. 진태의 집 / 아침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진태가 내린다.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진태

진태                     나왔어!

그 순간 진태의 눈앞에 가족들에게 총을 겨눈 박상위가 보인다. 기겁을 하는 진태.

## 78. 호텔, 철령의 객실 / 낮

---

철령이 컴퓨터로 김철수가 사용했던 ‘프리즈 하버’라는 가명을 검색한다.

철령                     (혼잣말) 독일의 화학자... 유태인을 학살한 독가스 발명!...

죽어가던 김철수가 한 말이 떠오른다. “막아야 해! 학살을...” 황급히 전화를 하는 철령

## 79. 공항, 대합실 / 낮

---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잭. TV에서 북미 대표회담 뉴스가 흘러나온다.

앵커                    오늘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났습니다. 북  
측대표단은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때 철령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망설이던 잭이 전화를 받는다.

잭                    You asshole!!  
철령                    제보자는 김철수야! 죽기전 학살을 막아야 한다고 했어! 그가 사용한 프리츠하버란 이름은 유  
태인을 학살한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 이름이고!  
잭                    독가스?  
철령                    심상치가 않다!

그때, 비행기 탑승수속이 시작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잭                    (갈등) Too Late!.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전화를 끊는 잭. 그때 지부장에게 전화가 온다.

지부장                    (영) 수고 많았어! 이제 곧 비행기 시간이지?  
잭                    (영) (고민) 가기 전에 확인 할 게 있습니다. 제보자가 죽기 전 이상한 말을 했다고요!  
지부장                    (영) 다 끝난 마당에 김철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뭐가 중요한가  
잭                    (영) (얼굴이 굳으며) 제보자가 김철수라는 걸 말씀 드렸던가요?  
지부장                    (영) (당황) 추측일세... 아니었나? 잭... 잭!

충격을 받은 잭, 말없이 전화를 끊는다.

#### <FBI NY 지부, 지부장실>

지부장이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지부장                    (영) 눈치챈 것 같소...

#### <미니밴>

진태를 태우고 이동중인 자동차, 지부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끊는 박상위  
박상위가 전화를 끊고 어딘가로 전화를 한다.

박상위

비행기 못타게 하라!

## &lt;공항대합실&gt;

귀밑에 도마뱀 문신이 있는 한 남자(이하 암살자)가 박상위의 전화를 받는다.  
 잭을 노려보는 암살자

## 80. 호텔, 북측대표단 숙소, 감금실 / 낮

장명준을 구금한 객실, 장명준이 의자에 묶여 있다. 문이 열리며 김정택이 들어온다.

장명준                    피라미 한 마리 잡았다고 백두혈통 김정택 동지가 여까지...

김정택                    닥치라우!

김정택이 장명준의 따귀를 갈긴다. 피를 뺏으며 노려보는 장명준.

장명준                    달라를 벌어야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네 말만 믿고.. 내래 군인의 명예도 뺏개치고 마  
 약상 노릇을 했디 근데 그 돈이 한 간나새끼 아가리로 들어가더란 말이다...

김정택                    눈깔 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할것이지?

김정택이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노트북을 펼쳐 스위스은행에 접속한다.

김정택                    10억불 전부 내 계좌로 옮기라우!

장명준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 81. 공항, 화장실 / 낮

아무도 없는 화장실, 잭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한 후 거울을 본다.

잭                    (영) Fuck!!! 지부장이 쥐새끼였다니... 어떡하지!

그때 암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잭의 맞은편에서 손을 씻는다.

잭은 유리 파티션에 가려져 암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총을 꺼내 파티션 너머 잭을 겨누는 암살자. 암살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잭이 벽에 붙은 거울에 비친 암살자를 보고 황급히 몸을 숙인다.

암살자의 총구가 불을 뿜으며 유리 파티션이 박살이 난다.

잭이 세면대 아래로 돌아 나와 암살자를 덮쳐 총을 쳐내고 격투를 벌인다.

암살자가 단추로 된 와이어 줄을 꺼내 잭의 목을 조른다.

잭이 와이어를 풀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변기칸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다.  
 잭이 와이어를 풀고 암살자를 발로차자 화장실 벽을 뚫고 튀어나온 암살자.  
 잭이 암살자의 옷을 뒤집어 시야를 가린 뒤 남은 파티션에 그대로 던져버린다.  
 암살자가 다시 자세를 잡고 덤벼드는데 잭이 암살자를 유아용 세면대 위로 업어치기 한다.  
 다시 일어나려는 암살자의 머리를 내려쳐 완전히 끝장내는 잭.  
 잭이 암살자의 지문으로 핸드폰을 열어 내용을 살피는데 진태가족을 찍은 사진이 나온다.

잭                      SHIT!!!!

## 82. 호텔, 철령의 객실 / 낮

---

잭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철령.

### <도로, 택시 안>

빠르게 질주하는 택시 안, 잭이 철령과 통화중이다.

잭                      마이보스가 쥐새끼였어! 우리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던 장명준이 도대체 왜 잡혔을까?  
 철령                      설마... 일부러 잡혔다는 말이네?  
 잭                      그래! 게다가 놈들이 진태 패밀리로 노리고 있어!  
 철령                      !!!!  
 잭                      패밀리는 내가 구할게! 장명준은 내가 맡아라!

뭔가를 직감하고 밖으로 나가는 철령.

## 83. 진태의 집, 앞 / 낮

---

택시에서 내리는 잭, 진태의 집을 올려다 본다.  
 그때 국정원 박스카가 주차장에 멈추고 선호가 내린다. 선호에게 달려오는 잭.

잭                      (다짜고짜) 너 날 알지?  
 선호                      네??? (얼떨결에) 네!!!

### <국정원 박스카안>

도청장치와 감시 카메라로 집안의 상황을 파악하는 잭  
 장명준의 부하 두 명에게 인질로 잡힌 가족들이 보인다.

잭                      자네! FBI랑 공조할 생각 없나?  
 선호                      (눈이 뚱그래지며) 리얼리?

<진태의 집안>

인질로 붙잡혀 있는 연아가 울먹이자 소연이 달랜다.

소연                    연아야! 기억하지! 그때처럼 아빠가 구하러 올거야!  
민영                    그래 울지 마! 괜찮을 거야!

<미니밴>

진태가 운전 중인 미니밴, 박상위가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운전을 하며 백미러를 통해 박상위의 대화를 엿듣는 진태

박상위                    정리하라!

<진태의 집안>

전화를 받고 있는 부하1.

부하1                    진행 하겠습니까!

<미니밴>

통화내용을 엿듣는 진태 다급해진다.

#### 84. 호텔, 북측대표단 숙소, 지하 주차장 입구 / 낮

---

호텔로 들어서는 미니밴. 검문 중인 경찰이 차를 세운다.  
진태가 창문을 열며 신분증을 보인다. 초조한 표정의 진태.

진태                    서울시경 강진탐니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 경찰정복 차림의 박상위와 부하들이 동승하고 있다.  
여차하면 쏘려고 총을 쥔 박상위. 운전석의 진태는 식은땀을 흘린다.  
그러나 경찰이 경례하며 진태의 차를 통과시킨다. 안도하는 진태.

<지하주차장>

미니밴의 박상위와 부하들이 모두 시계를 맞춘다. 현재시간 3시 40분

박상위                    시간 맞추라. 네 시다!

박상위의 지시에 뿔뿔이 흩어지는 부하들. 미니밴에는 진태와 박상위만 남는다.



진태                    난 죽어도 좋으니까 가족들은 살려줘! 제발!

박상위가 진태를 권총으로 내려친다.

박상위                닥치라우! 곧 만나게 해줄테니!

분노에 치를 떠는 진태, 그때 박상위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걸 눈치 챈다.

## 85. 호텔, 북측대표단 숙소 / 낮

---

### <복도>

철령이 달려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초조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철령.

### <빌딩 옥상>

장명준의 부하 두 명(이하 곤1, 2)이 옥상에 독가스 살포기를 설치한다.

곤1이 열쇠를 돌려 독가스살포기를 활성화 시키자 전원이 켜지고 타이머 5분이 세팅된다.

### <기계실>

기계실로 들어온 장명준 부하(이하 해커)가 컴퓨터를 꺼내 중앙통제시스템에 접속한다.

### <엘리베이터1>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철령이 올라타 27층 버튼을 누른다.

## 86. 진태의 집 / 낮

---

민영이 손목에 묶인 줄을 풀려고 애쓰지만 여의치 않다.

그때 창밖을 보던 민영이 창밖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잭과 눈이 마주친다.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두 사람. 민영이 인질범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를 쓴다.

민영                    바...밥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건데! 짜장면이나 시켜주든가!

소연                    (놀라며) 야 너 왜 이래!

민영                    짜장면 쿠폰 모아 놓 거 있잖아! 그거 쓰고 죽어야 들억울하지!

소연                    이 판국에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민영                    먹고 죽은 귀신이 떼갈도 곱다는데 난 곱빼기!!!

부하1                  (어이없음) 이 애미나이가 돌았나!!!

소연                    용서해주세요! 애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잘못 말아서 이래요!!!

민영이 인질범들의 관심을 끄는 사이 베란다를 통해 안방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잭.  
잭이 선호에게 무전을 한다.

잭                    *now!(지금이다)*

현관문 밖에 대기하던 선호가 목을 가다듬으며 초인종을 누른다.  
땡동 소리에 부하 1,2와 진태 가족들 모두 긴장한다.

선호                    *계세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부하1                    *가보라!*

부하2가 현관문으로 향하는 순간 잭이 부하2를 안방으로 끌어당겨 목을 비틀어 제압한다.  
신음소리를 들은 부하1이 안방으로 달려간다. 바닥에 쓰러져있는 부하2, 잭은 보이지 않고 열려 있는 창문을 발견한 부하1이 다시 거실로 달려나간다.  
베란다를 이용해 다시 거실로 나온 잭이 달려나오는 부하1을 덮치고 몸싸움이 벌어진다.  
부하1이 잭을 쏘려는 순간 민영이 부하1을 들이받아 방해한다.  
총이 엉뚱한 방향으로 난사되며 소연이 만든 테디베어 인형들이 벌집 신세가 된다.

소연                    *안 돼!!!*

부하1이 잭 위에 올라타 칼로 찌어 누르려고 한다. 힘겹게 버티는 잭.

잭                    *Open the door!!!*

민영이 팔다리가 묶인 채로 쿵쿵 뛰어 현관문을 연다.  
부하1의 칼이 잭의 심장을 파고들기 직전 ‘탕’소리와 함께 부하1이 쓰러진다.  
선호가 총을 들고 선 모습이 보인다.

잭                    *(안도하며) Good job!*

## 87. 호텔, 북측 대표단 숙소 / 낮

### <기계실>

중앙통제시스템을 장악한 해커가 엔터키를 누른다.

해커                    *접속 완료! 엘리베이터 차단!*

<엘리베이터1>

엘리베이터가 27층 도착 직전 갑자기 멈춘다.

철령이 다급하게 비상 버튼을 누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구금실>

김정택의 부하가 노트북으로 이체 준비를 끝낸다.

부하                   이체 준비 했습다.  
김정택               (USB를 건네며) 시작하라!

USB를 노트북에 꽂는 부하. USB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장명준의 눈이 번득인다.

<기계실>

기계실의 해커가 USB가 접속한 신호를 감지한다. 박상위에게 보고하는 해커

해커                   USB 접속!!!  
박상위(소리)       쪽쪽 빨아들이라!!!

해커가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지하주차장>

박상위의 눈치를 보던 진태.

진태                   너 혹시 급발진이라고 들어봤어?  
박상위               기거이 뭘데?

진태 폴악셀을 밟는다. 자동차 급발진하며 기동을 들이박고 박상위는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간다.

피투성이가 된 박상위, 차에서 내린 진태가 박상위의 총을 챙긴다.

그때 진태의 전화벨이 울린다. 소연으로 부터의 전화다.

진태                   여보!!!

<국정원 박스카 안 ↔ 지하주차장 교차>

도로를 질주하는 박스카, 운전 중인 선호와 그 옆의 잭, 진태 가족들

소연                   여보!! 괜찮아? 우린 괜찮아!!! 잭이 구해줬어!!!  
진태                   (반색하며) 정말?

잭                   놈들이 테러를 계획하고 있어! 막아야 해!  
진태               테러? 알았어! 잭! 우리 식구를 부탁한다!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진태, 버튼을 눌러보지만 먹통이다.  
할 수 없이 비상계단으로 달리는 진태.

잠시 후 쓰러져 있던 박상위가 눈을 번쩍 뜬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진태를 뒤쫓기 시작한다.

박상위           간나새끼!!!!

### <구금실>

김정택의 노트북 화면이 깜박거리더니 김정택 계좌의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김정택           뭐이가? 왜 이래?  
부하           해킹 걸렸습다. 계좌의 돈이 다 빠지구 있습니다.  
김정택           (당황하며) 이 새끼야! 날래 막으라!

허둥대는 김정택을 보며 깔깔대며 비웃는 장명준

장명준           호랑이를 잡으려든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디!  
김정택           (총을 뽑으며) 이 간나새끼!!!

그 순간 김정택의 눈이 커진다. 창문 밖에 곤돌라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곤 1, 2가 든 기관총이 불을 뽑기 시작한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며 깨지고 김정택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경호요원들도 제압된다.  
그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해 들어온 장명준의 부하들이 감금실 밖 복도의 요원들을 제압한다.

곤1, 2가 장명준을 풀어주고 기폭장치와 열쇠가 달린 목걸이(해제장치)를 건넨다.  
열쇠가 달린 목걸이를 목에 거는 장명준.

피를 흘리며 노트북에 꽂힌 USB를 향해 기어가는 김정택.  
그러나 장명준이 한발 먼저 USB를 손에 쥘다.

장명준           너를 공화국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몇 년을 준비 했는디 모르디? 아무 죄 없는 내 식구는 왜  
                  죽였니?  
김정택           (벌벌떨며) 이보라 명준이...  
장명준           지옥까지 쫓아가 원수를 찢어 죽이는 게 남편이자 아바이의 도리 아니가서!

애절한 표정의 김정택. 가차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장명준.

### <엘리베이터>

총소리를 듣고 상황이 긴박함을 느낀 철령이 엘리베이터 문을 힘으로 연다.  
엘리베이터가 27층에 반쯤 걸쳐 있다. 엘리베이터를 재빨리 빠져나온 철령.  
복도를 지키고 있는 장명준의 부하 두 명을 차례로 사살하며 달려간다.

### <구금실>

구금실을 빠져나오려던 장명준 일당과 마주치는 철령.  
서로 총격을 가하며 은폐물을 찾아 숨는다.  
숫적으로 우세한 장명준이 곧1, 2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곧1, 2가 철령이 숨은 곳으로 쫓아가 총을 난사한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철령이 곧1을 때려눕히고 기관총을 뺏어 곧2를 쏘아 쓰러뜨린다.  
그러나 어느새 나타난 장명준이 철령의 머리에 총을 겨눈다.

철령                    무슨 속셈이야? 독가스는 또 뭐이고?  
장명준                (기폭장치를 보이며) 이걸 누르고 5분 후면 옥상에 설치한 독가스가 사방으로 퍼질기야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 거다  
철령                    미친 놈!!!

장명준이 철령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탕” 총성이 울린다.  
진태가 달려오며 장명준에게 총을 쏜다. 장명준 어깨에 총알이 스치고 손에 쥔 USB가 떨어진다..  
장명준이 재빠르게 몸을 숨긴다. 진태가 떨어진 USB를 주워 철령과 합류한다.

철령                    성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진태                    그 애긴 나중에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철령                    놈들이 독가스를 살포하려고 해요 옥상의 폭탄을 해체해야 합니다!  
진태                    독가스?

철령이 창밖에 매달려 있는 곤돌라를 보고 뭔가를 생각해낸다.

철령                    옥상으로 갈 테니까 엄호하라고!  
진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진태가 엄호사격을 하면 철령이 달려가 몸을 날려 곤돌라에 올라탄다.  
장명준이 철령의 의도를 눈치 채고 곤돌라를 향해 달린다.  
진태 장명준을 향해 총을 쏘보지만 실탄이 떨어진다.

철령이 곤돌라를 위로 조종하는 순간 장명준이 몸을 날려 철령을 덮친다.

<공중, 곤돌라>

철령과 장명준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곤돌라가 위태롭게 흔들린다.

몸싸움 중에 총이 발사되고 곤돌라를 지탱하던 두 개의 와이어 중 하나가 총에 맞아 끊어진다.

<복도, 객실>

진태가 창가 쪽으로 와 철령을 보려는데 줄이 끊어진 곤돌라가 진태쪽으로 돌진한다.

몸을 날려 피하는 진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때 박상위가 나타난다.

박상위

**강형사!!!**

박상위가 총을 난사하고 진태가 몸을 날려 피한다.

<공중, 곤돌라>

기울어진 곤돌라에서 철령은 난간을 잡고 버티지만 장명준은 굴러 떨어져 곤돌라 끝에 매달린다.

곤돌라는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채 계속 상승한다.

<복도, 객실>

박상위가 소파를 향해 총을 난사하고 소파 뒤를 향해 총을 겨누지만 아무도 없다. 바닥의 핏자국.

핏자국을 따라오는 박상위. 룸 안으로 진입하며 총을 난사한다.

벽걸이 TV가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지고 침대 이불의 오리털이 사방으로 날린다.

침대 밑에 숨은 진태의 시야로 보이는 박상위의 발, 진태가 바닥에 깨진 거울 조각을 집는다.

박상위

**사내 새끼가 혼자 살았다고 장정되문 되잖니? 식구들이 기다린다. 따라 가야디!**

진태가 흘린 핏자국이 침대 앞에서 멈췄다. 박상위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침대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려는 순간, 진태가 거울 조각으로 박상위의 발등을 찌른다.

박상위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실수로 방아쇠를 당기고 실탄이 난사되며 탄창이 바닥을 드러낸다.

거울조각을 쥔 진태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박상위도 총을 버리고 칼을 뽑는다.

박상위는 진태의 공격을 여유있게 피하며 진태의 팔, 다리를 칼로 긁는다.

고통에 일그러지는 진태의 표정, 이대로 가다간 가망이 없다.

그때 진태의 눈에 벽에서 날카롭게 돌출된 벽걸이 TV 설치용 쇠파이프가 보인다.

박상위

**드루오라! 배때기 갈라서 박제로 만들어 주잖어!**

진태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두 개나 넘었어! 첫째!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온 거! 둘째!! 내 가족을 건드린 거야!**

박상위

**(비웃으며) 그래서 어쩔 거니? 이 약해빠진 아새끼야!**

진태                    인간 강진태는 약해도 대한민국 형사 강진태는 강해 이 개새끼야!~~

진태는 박상위가 휘두른 칼을 가까스로 피한 후 박상위의 허리를 들어올려 벽으로 돌진한다.  
쿵하며 벽에 돌출된 파이프가 박상위의 가슴을 관통한다. 헉헉 가쁜 숨을 내쉬는 진태.

진태                    (벽에 매달린 박상위를 보고) 박제는 너야 이 새끼야!

#### <공중, 곤돌라>

30층 높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상승하고 있는 곤돌라  
철령이 곤돌라 끝에 매달린 장명준에게 손을 뻗는다.

철령                    기폭장치 내놓으라!

장명준이 미친놈처럼 웃으며 기폭장치의 버튼을 눌러버린다.

장명준                (철령을 놀리듯) 톱! 톱!

철령                    (분노) 비열한 놈!!!

#### <인서트>

옥상 환기구에 설치된 독가스 살포 장치의 타이머가 작동된다. 5:00... 4:59... 4:58

그때 상승하던 곤돌라가 옥상에 도착한다. 철령이 다급하게 뛰어내려 독가스 분사기를 찾는다.  
곤돌라 끝에 매달린 장명준도 젖먹던 힘을 다해 기어오른다.

#### <비상계단>

다리를 절룩거리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진태

#### <옥상>

철령이 옥상 이곳저곳을 수색한다.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장명준이 뒤에서 단검으로 공격한다.  
철령이 재빨리 피하지만 옆구리에 상처를 입는다. 대치하는 두 사람.

철령                    어서 폭탄을 멈춰! 죄없는 사람까지 다 죽일 셈이야!

장명준                (피식) 와 죄가 없니? 남조선이 망명을 받아줬으면 내 식구들이 개죽음 당하디는 않았을기야!  
내 딸과 마누라가 불에 타 죽었어! 이제 남조선 아 새끼들도 지옥을 맛봐야디!

장명준이 차고 있던 방독면을 풀어 바닥으로 던진다.

장명준                한 놈만 살아 남는기야! 이번엔 끝장을 봐야디 안카서?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만신창이가 된 진태가 비틀거리며 나타난다.

철령                    시간없시오. 폭탄을 찾으라요!  
진태                    아..알았어!

폭탄을 찾기 시작하는 진태  
장명준이 다시 단검을 휘두르며 공격한다. 철령 맨몸으로 막고 피하지만 점점 뒤로 밀린다.

#### <폭탄 위치>

옥상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진태는 공조 장치에 설치된 독가스 폭탄을 찾아낸다.  
하지만 장치는 복잡한 선들로 연결되어있어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는다.  
타이머는 채 3분도 남지 않았다. 그때 진태의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스친다.

진태                    !!! (황급히 전화를 꺼낸다.)

#### <국정원 박스가 안>

잭의 전화로 영상통화가 걸려온다. 잭이 전화를 받으면 진태의 얼굴이 보인다.

진태                    시간 없으니까 잘 들어!

진태가 독가스 폭탄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비춘다.

잭                    이게 뭐야?  
진태                    독가스 폭탄이야! 3분도 안남았어!  
잭                    What!!! 그걸 왜 이제 말해! 우리 지금 도착했는데!  
진태                    미쳤어? 여길 오면 어떡해!!! 어서 돌아가!!  
소연                    무슨 소리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진태                    (다급) 환장하겠네!!! 폭탄 해제 못하면 다 죽어!! 잭! 어떻게 할까?  
잭                    (당황)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진태                    폭탄처리반 했다면!!! 어서!

잭 긴장한 채 화면을 유심히 본다.

잭                    잠깐!! 거기...구멍!!! 해제하는 키가 있을 거야!  
진태                    키?



진태가 절룩거리며 철령이 싸우고 있는 쪽으로 간다.

<철령과 장명준 위치>

철령이 장명준이 휘두른 칼을 피한 후 팔을 꺾자 장명준이 칼을 떨어뜨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

장명준                    거머리 같은 새끼!! 이번엔 확실히 죽으라우!

달려드는 장명준, 순식간에 수십 합을 주고받는 빠른 템포의 액션이 펼쳐진다.

## 88. 호텔, 입구 / 낮

출동한 소방차와 경찰차들로 북적이는 입구로 박스카가 도착한다.  
차에서 내리는 잭, 호텔로 달려 들어가려는 잭을 막아서는 표반장.  
지원 나온 오덕과 종구의 모습도 보인다.

표반장                    못 들어가 통제됐어!  
잭                         루프탑에 진태와 철령이 있다.  
표반장                    (놀라며) 진태가 거기 왜?  
잭                         옥상에 폭탄이 있다구! 시간이 없어!  
표반장                    뭐? 미쳐버리겠네!

그때 드론을 들고 오덕이 달려온다.

오덕                        정찰 준비 끝났습니다. 드론 띄울까요?  
표반장                    허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해!

## 89. 호텔, 북측 대표단 숙소, 옥상 / 낮

<철령과 장명준 위치>

지친 두 사람, 가쁜 숨을 몰아쉬다. 몸싸움을 벌이던 철령과 명준이 바닥을 뒹군다.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쥐는 장명준, 철령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든다.  
철령이 장명준의 공격을 되치기 하며 칼을 빼앗아 장명준의 등에 칼을 꽂는다.  
피를 토하는 장명준, 최후를 직감하는 표정. 그때 진태가 나타나 소리친다.

진태                        철령아!!! 열쇠! 해제하는 열쇠가 필요해!

비틀거리던 장명준, 폭탄 해제 열쇠가 달린 목걸이를 손에 움켜쥐었다.

장명준                   크크크... 이거 말이네?

철령                     내놓으라!!! 어서!

비틀거리던 명준이 서서히 옥상 끝으로 뒷걸음질 친다.

장명준                   내래 마누라랑 딸아이 만나러 가갔서, 철령아 얼른 따라오라!

장명준이 악마같이 웃으며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진다.

철령                     안돼!!!

철령이 달려가 보지만 까마득히 아래로 떨어지는 장명준.

## 90. 호텔, 입구 / 낮

---

쿵하며 경찰차 위로 떨어지는 장명준의 시체

잭이 달려간다. 장명준이 손에 쥐고 있는 열쇠 목걸이가 잭의 눈에 들어온다.

얼른 열쇠를 챙기는 잭. 그러나 하늘을 올려다보면 까마득히 보이는 수십층 높이의 호텔.

## 91. 호텔, 북측 대표단 숙소, 옥상 / 낮

---

### <인서트>

독가스 폭탄 타이머의 시간이 40초 남아있다.

망연자실 아래쪽을 내려다보던 철령과 진태가 바닥에 털썩 주저 앉는다.

철령                     틀렸시오... 시간이 없습네다.

진태                     어떻게 좀 해봐! (울먹) 우리 식구들이 여기 와 있다구!

그때 웅하며 솟아오르는 드론, 철령과 진태 드론을 보면 열쇠가 드론에 달려있다.

얼른 열쇠를 잡아 독가스 폭탄으로 달려가는 철령과 진태.

타이머의 시계는 10초도 남지 않았다. 10, 9, 8

가까스로 달려와 열쇠를 폭탄에 끼워 돌리는 철령. 타이머가 2초를 남기고 멈춘다.

다리에 힘이 풀린 철령과 진태 털썩 주저앉는다.

진태                     (상처를 만지며) 오늘 아주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랜드슬램 달성이다!

철령 (웃다가 고통) 성! 근데 집에 어케 다가지? 형수한테 우리 죽었다...

잠시 후, 잭과 표반장이 옥상 문을 박차고 달려온다.

잭이 피투성이가 된 진태와 철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글썽거린다.

잭 (울먹) 형! Are you okay?

진태 그래그래!!! 근데 너 방금 형이라고 했냐?

잭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진태 이거! 지 불리할 때만 못 알아듣는 척!!!

## 92. 호텔, 입구 / 낮

사건수습을 위해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뒤섞인 어지러운 상황.

진태, 철령 잭이 서로를 부축하며 빌딩을 빠져나온다.

진태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진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스위스 은행계좌의 USB다.

진태 네가 가져가면 정말 식량난 해결에 쓸까?

철령 (선뜻 대답을 못한다) ...

잭 I have a good Idea!

폴리스라인에 붙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소연과 민영. 잠시 후 진태와 철령 잭이 나타난다.

민영이 철령과 눈이 마주치고 활짝 웃는다.

경쾌한 테마곡 시작되며 소연의 시점으로 진태가 슬로우비디오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소연 어머어머 세상에! 민영아! 나도 보인다! 스...슬로우비디오! 대~박~

슬로우 비디오로 걷는 세 남자. 진태는 두 미남 사이에서 전혀 끌리지 않는 포스를 풍긴다.

바라보는 민영과 소연 눈이 호강한다.

### F.O 어둠 속에서 들리는 뉴스소리

뉴스(소리) 유니세프가 북한에 10억 달러의 식량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10억 달러의 거액을 기부한 후원자와 자금출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니세프는 후원자의 뜻에 따라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게이츠와 손정의 회장은 이번 후원과 관련이 없음을 공식성명을 통해 밝

했습니다.

<에필로그 -남북 출입국 사무소>

F.I

보안원 정복을 입은 철령이 남북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북으로 넘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진태, 민영, 소연, 연아, 그리고 잭이 배웅을 하고 있다.

진태                    그 10억볼 딱 하루만 내 통장에 넣다 뺏으면 이자로 빚 다 갚았을텐데..  
철령                    (웃으며) 잘 계시라요.

정식 경례를 하는 철령, 진태와 잭도 손을 들어 경례한다.  
차에 타는 철령에게 민영이 다가온다.

민영                    (울먹인다) 철령씨 기다릴게요!  
철령                    (놀라며) 기다린다고요?  
민영                    네 기다릴게요

눈가가 축축해지며 미소 짓는 철령. 마침내 철령의 차가 출발한다.  
경쾌한 테마곡이 울려 퍼진다. 그 위로 들리는 잭과 민영의 대화.

잭                        민영씨는 미국 가봤어요?  
민영                    아니요.  
잭                        그럼 나 미국 갈 때 같이 놀러 갈래요?  
민영                    진짜요?

그때! 경쾌한 음악이 뚝 멈추고 톨게이트로 향하던 철령의 차가 급유턴 한다.  
가족들이 의아한 모습으로 차를 바라본다. 잠시 후, 진태 앞에 멈춰 유리창을 내리는 철령.

진태                    왜? 뭐 놓고 갔어?  
철령                    (잭에게) 절떡대디 말라..  
잭                        (어이없다) ...

놀란 표정의 민영에게 미소를 날리며 뭔가를 건네는 철령.  
민영이 받아들면 립스틱이다. (S#7 한광성이 건넸던) 활짝 웃는 민영.  
철령. 다시 경쾌한 음악 이어 흐르고 멀어지는 철령의 자동차 모습에서 엔드 크레딧 오른다.

엔드 크레딧과 함께 작은 화면으로 쿠키영상 방출된다.

<심야의 으스스한 골목길>

깊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또각또각 여성의 구두소리. 그 뒤를 검은 그림자의 사내가 뒤따른다.  
 사내의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발걸음을 서두른다. 더욱 빠른 속도로 뒤따르는 사내.  
 여성이 커브를 돌아 막다른 골목길이다. 당황하는 여성.  
 다가오는 사내의 얼굴이 험상궂다.

사내                    조용히 해...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거니까...  
 여성                    새끼가 보는 눈은 있어 가지구!!!  
 사내                    (어이없음) 너 지금 뭐라 그랬...음!!!

손흥민이 강력한 슛을 날리 듯 사내의 낭심을 걸어차는 여성, 게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사내.  
 그때 골목길로 달려오는 순경들. 쓰러진 사내를 보고 한숨을 내쉰다.

순경1                    살살 하라니까 또 애를 고자로 만들어!  
 순경2                    뻘뻘요! 재 경찰학교에서도 포라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대요!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는 여성의 얼굴, 바로 민영이다.

민영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내                    누구신데요? (내시처럼)  
 민영                    강북 경찰서 낭심폭격기 박민영 순경이다! 알았어?

쓰러진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채우고 끌고가는 민영.  
 긴 머리를 뒤로 멋지게 넘기는 모습에서 스톱모션. F.O

- 끝 -